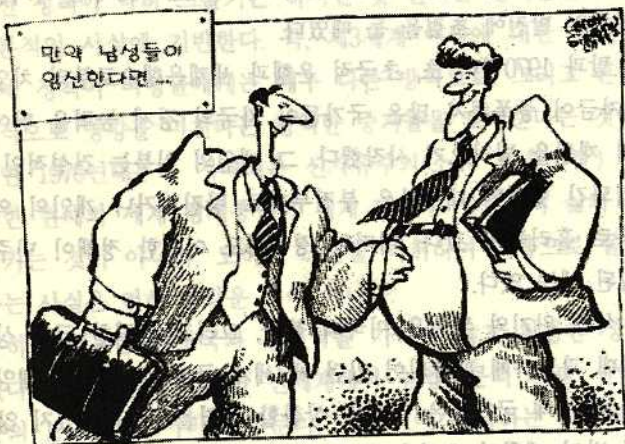


되기 시작했다. 외채 위기는 제3세계 국가들을 새롭고 전혀 없는 중속으로 이끌어갔다. 외채를 처리하는 데 있어 IMF에 의해 강요된 구조조정 정책과 긴축정책은, 민중의 삶에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괴적 영향을 미친, 이제는 악명이 높아진 유산을 형성하게 되었다. 국가마다 신용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자국 경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민중과 천연자원을 착취하면서 발전 계획의 궤도를 포기해야만 했다. 수많은 정부 프로그램들이 민영화되었다. 교육, 보건의료, 식생활 보조금 등의 사회적 성과는 급격히 해체되는 한편,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통화는 평가절하 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타격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여성들이었고 그 영향은 아주 혹독했다. IMF의 긴축 정책은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로부터 의료혜택, 식생활 보조금, 편의 시설, 그리고 다른 사회적 서비스들을 빼앗아 갔다. 모든 자녀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아들의 교육을 지속시키기 위해 딸을 자퇴시켰다.



자네 직장생활 정말 진취적으로 하는데!

왜 여성들이 대가를 치뤄야만 하는가?

(2013.12.13)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외채를 끌어쓴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외채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외채 상환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고통받은 경험을 서로 나누고 있는 카리브해 여성들은 IMF와의 협상 대표가 남성들이 아닌 여성들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페기 엔트로부스의 말처럼 “그들(IMF)이 여성의 고통을 이해하게끔 만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No’라는 답변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하락하는 가족의 삶의 질을 책임지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생계 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었던 남성 파트너와 가장들은 가정을 버리고 떠나거나 일을 찾아 도시로 이동했다. 남겨진 여성들은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려 부족한 수입을 채워야했다.

여성들은 비가시적인 가사노동과 기본적인 농사 활동의 책임을 져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가계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공식 및 비공식 경제 영역에서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어느 쪽에서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의 가능성은 매우 빈약했고, 점점 더 빈약해지고 있다. 몇몇 여성들은 성장하고 있는 국제 성매매의 상품으로 전락하여 매매춘의 길로 접어들기도 했다.

성매매는 선진국 남성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제3세계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집중되는 사업이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구동구권 국가의 여성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IMF 지배 하에서 외채를 지닌 국가들은 이른바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자유화’가 수출공장지대 여성들의 맘으로 가동되는 전지구적 조립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초착취 지대(EPZs)

여성들은 직면한 빈곤에서 해방되고 가부장적인 가정으로부터 상대적 인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수출공장지대(EPZ)의 일자리는 여성들을 현혹시킨다.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주류 공식 경제에서 전통적으로 배제되어왔던 여성들이 EPZ로 기업을 유인하는 미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EPZ는 제3세계 전역의 수많은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산업 편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수출공장지대는 원래 국가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고용 창출과 모조품 산업 건설의 한 방편으로 이 단지들을 육성하도록 장려받는다.

EPZ는 흔히 국내 경제의 다른 부문들과 아무런 연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때로는 도로, 전기, 그리고 공장의관과 같은 인프라가 지방 정부의 비용으로 만들어지며 같은 나라의 다른 곳에서는 합법적인 노동 조합 기준들이 이 지역에서는 폭력적으로 탄압되기도 한다. EPZ는 값싼 노동을 찾는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 만들어진다.

여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EPZ의 최고 선호 고용 대상이다. (1) 여성 노동이 남성노동보다 열등하다는 관념은 최저 임금 이하의 여성임금을 정당화하고 있다. (2) 여성은 정밀함을 요구하는 부품 조립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 데에 이상적인, 섬세한 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3)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은 남성보다 권위에 더 잘 복종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잘 견뎌낸다. (4) 젊은 여성은 부모와 살기 때문에 숙식 비용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해도 된다. EPZ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참혹하다.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장시간 초과 노동, 변변치 않은 환풍 시설로 공장 내에 가득 찬 유독 가스, 화장실 이용시간 규제와 한 달에 한번 필수적인 임신 테스트 등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는 문서화된 여러 학대 사례의 일부분일 뿐이다. 무역과 이윤을 위해 여성의 삶은 직접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지구적인 노동착취공장

개도국의 여성들은 세계 경제로 통합 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노동조건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제공된 경제 공간에 대해 감사하기도 한다.

여성, 특히 산업국가에 있는 빈곤층 노동계급의 여성은 자기 자신의 모순과 속박을 대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대개 이주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노동착취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은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조차 여성은 경제적 그리고 인간적 비참함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정부가 전례없는 경제 성장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고 있지만, '복지 개혁'과 정부 예산의 균형을 핑계삼아 여성노동자의 생존과 모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의료혜택, 보육, 생활임금)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제3세계와 선진국 양자 모두에서 여성 임금노동자의 증가는 노동력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노동자 조직화의 목표와 전망을 확대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여성들에게 키워주고 있다. 임금 노동자로서 여성들은 임금이나 수당과 같은 전통적인 노조의 관심사와, 보육, 교육, 가계 소득 지원과 같은 사회적 관심사를 분리시킬 수 없다.

일찍이 자본주의가 대격동을 일으킨 시기인 1930년대에, 당시 보수적 노조 관료들이 '조직화될 수 없다'고 간주한 미조직화된, 그리고 선거권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미국의 엄청난 산업 노동자층이 결국 산별회의(CIO)의 기반이 되었다. 오늘날 전지구적 경제에서 착취받는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와 사회적 해방은 바로 이러한 폭발적인 잠재력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를 보더라도 사회적, 산업적, 환경적 정의를 공공연히 무시하는 WTO와 세계 경제통합 구조에 대항했던 시애틀 시위의 사회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시애틀 시위에 대한 여러

시각을 「시류를 거슬러서」 이번 호 다른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전지구적 시장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국제 기구를 갈구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있다. 고통과 비탄의 25년이 흐른 후, 부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운동인 주빌리2000 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4월 16-17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MF와 세계은행 반대 행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여성의 삶과 수많은 인간이 생존이 여기에 걸려있다.

• 출처: 「인터내셔널뉴스」 91호 (2000/3/16)

「시류를 거슬러서(Against the Current) 2000년 3·4월호

** 포틀랜드 주립대학 사회학 연구소

마킬라 수중에 놓인 중앙아메리카 노동자들*

모리스 르무앵**

마킬라는 외국 기업과의 계약 하에 운영되는 공장들로, 최소의 비용으로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960년대 멕시코에서 처음 출현하였으며 현재 북미로부터의 공장 이주와 남미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중앙 아메리카의 자유무역지대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조합은 억압받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다. 고용주들은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주당 70시간 또는 그보다 더 긴 노동을 강요하는 데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박봉으로 인한 굶주림뿐이다.

엘레나는 니카라과의 마나과로부터 30킬로 떨어진 티피타과의 허름한 판자집에서 살고 있다. 그녀가 희미한 전기불을 키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날 때,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러나온다. 그녀는 한참 지나서야 그날의 뉴스를 듣게 될 것이다: 판딜라(갱단)가 키타니아 구역에서 테러를 저질르고 있어, 매일 벌어지는 175건의 범죄가 1997년도의 니카라과 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교통부가 새로운 '암살단'이라 불리는 마나과 버스의 절반이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최악의 상태를 밝혀냈다는 것, 그리고 아르놀도 알레만 대통령이

이 내각을 교체 할 예정이라는 것 등등.

그녀의 몸은 그 전날부터 계속 아프고 피곤하다. 엘레나는 커피를 끓이고 아이들을 깨운다. 변변찮은 식사 후에 그녀와 아이들은 모두 그들을 돌봐주는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서둘러 간다. 그래도 엘레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그녀와 함께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미혼모지만 아이를 돌봐줄 이웃이나 친구를 찾아,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되도록 그들이 버는 것 이하로, 그러나 그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여섯 시에 버스는 티피타와 중앙광장에서 마지막으로 경적을 울린다. 엘레나는 간신히 올라탔다. 입석 칸만 있다. 사람들의 얼굴은 졸음으로 부풀어 올라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전날 저녁에 집에 도착한 시간은 여덟 시에서 아홉 시이다. 그들은 맡겨진 아이들을 찾아와야 하고 아이들에게 적어도 몇 분간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며 식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날 먹을 간단한 점심을 준비해놔야 한다. 집안 일하고 난 후,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지친 몸을 침대에 누일 수가 있다.

기계 앞의 기계

그 버스는 마나과 행이다. 중앙통로에 서서 모든 덜컹거림에 흔들리고, 엘레나는 다가오는 일요일에 대한 꿈조차 꿀 수 없다.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요. 쉬는 날이 되면 나는 완전히 지쳐있어요. 쉬는 날 내 유일한 기쁨은 오후에 약간의 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에는 잠을 거의 못 자요. 거의 로봇같은 삶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언제나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을 조금 사고 집안일과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야 한다. 이모나 할머니 집을 방문해야 한다. 아이들이 보는 것마다 사달라는 바람에 외출도 쉽지 않다. “가끔 나는 이렇게 고달프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요.”

버스는 마나과의 국제공항에서 가까운 라스 메르세데스 자유무역지대 입구에서 멈춘다. 그곳에는 수많은 다른 차들이 도시로부터 도착해서

인간화물들을 토해내면서 내는 경적음과 엔진이 시끄럽게 돌아간다. 여자와 남자들이 제각기 자신들의 마킬라¹⁾ 건물을 향해서 허둥대며 간다. 일은 공식적으로 7시에 시작한다. 6시 30분에 시작한 사람들은 한 달에 50코르도바스(5달러)²⁾를 더 받는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기 위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수천 명씩 일터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들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은 오후 5시 15분에 일이 끝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7시나 8시 혹은 9시에 끝나고 더 늦게는 10시에 끝나는 사람들도 있다.

1990년 비올레타 차모로(우익)의 선거 승리와 산디니스타의 패배로 인해 조성된 라스 메르세데스 자유무역지대에는 18개의 기업들이 있다. 하나는 니카라과인 소유이며, 하나는 이탈리아인, 하나는 홍콩인, 일곱 개는 미국인, 다섯 개는 대만인, 세 개는 한국인 소유이다. 한국의 큐피도 인터내셔널을 제외하고 모두 북미시장에서 소비될 의복을 생산한다. 제이 씨 페니(대형 유통업체-웁긴이), 시어즈 로백(미국의 대규모 통신회사로 본사는 시카고에 있다-웁긴이), 월마트나 몽고메리 워드와 같은 거대기업들의 하청으로 1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1996년에 거의 1억 5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수출품을 생산했다. (1997년에는 2억 2천만 달러, 1998년에는 3억 달러로 예상된다.) 자유무역지대 연합 사무총장인 길베르토 웁은 “투자자를 유인하는 주요 매력은 높은 수준의 실업과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매우 경쟁력 있는 임금, 마지막으로 미국으로부터 단 두 시간의 비행 거리에 있는 우리의 지리적 여건이다”라고 설명한다.

1960년대 멕시코에서 개발되어 도미니카 공화국과 카리브해 연안으로 뻗어간 마킬라 사업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1991년 이래로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범위, 특히 워싱턴의 부추김으로 추진된 CBI범안(Caribbean Basin Initiative; 중미국가경제부흥의 일환으로 나프타의 전 단계인 관세면제 및 쿼터의 혜택을 주는 제도-웁긴이)의 통과로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 착상은 자유무역지대(또는

1) 하청기업. 마킬라(maquilla)라는 용어는 스페인어 동사 마킬라(maquilar)에서 왔다. 방앗간 주인이 그의 방앗간을 농부에게 빌려주는 댓가로 밀가루를 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2) 1달러 = 대략 1,300원



공업단지)의 마킬라들이 원재료와 반제품을 수입해서 단순조립노동을 수행한 뒤에 완제품을 재수출하여 최고가로, 주요하게는 미국에 재수출한다는 것이다. 중앙아메리카는 거의 의복산업(셔츠, 청바지, 티셔츠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외화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그리고 '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로 이들을 정중히 맞을 준비를 하면서 도로·항만시설·싼 전화요금·물과 전력 등의 인프라를 구축했고, 수출입 관세를 면제해 주었다. 거주 인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치외법권이며 국내 영토에서 철저히 차단된 이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판매와 생산이 이루어진다. 마킬라의 건물과 시설은 토지세는 물론 수입과 이윤,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면제받는다.

가장 최근에 시장에 뛰어든 니카라과는 지금까지 그러한 공장에 단지 1만 3천여 명의 노동자만이 일하고 있지만, 선발주자인 멕시코는 거의 80여 만 명이 일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8만 명, 과테말라는 17만 5천명, 온두라스는 대략 9만 명,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는 각각 5만 여명이다³⁾. 그리고 파나마는 1,200명이다(카르테르 토르리호스

3) 1995년 말, 이 부문은 멕시코의 공식 산업부문 임금소득자의 거의 25%를, 과테말라에서 77%, 코스타리카에서 27%, 엘살바도르에서 9%, 자메이카에서 30%

협정으로 반환된, 이전의 미국 기지에 공업단지를 세우기 시작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선호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른 방도가 없었으므로 각 정부는 이런 종류의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사실 자유무역지대와 마킬라는 점차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발전모델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알레만 대통령과 악수하는 자신의 사진 옆에 앉아서 길베르토 왕은 우리에게 말했다. “그러나 성실한 노동자들은 자유무역지대 밖의 숙련된 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범합니다.” 임금은 한 달에 약 1,200코르도바스(120달러)이다. 이와 비교하여 니카라과의 교사들은 40달러, 경찰관은 30달러, 공중보건의와 간호사들은 100달러 이하를 번다.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140달러까지 벌 수 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라고 직물, 의류, 피혁 및 가죽산업 산디니스타 노조연맹(CST)의 사무총장 페르도 오르테가는 마지못해 인정한다. 그는 이어서 “그러나 그것은 하루에 열두 시간 내지 열 네 시간을 일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기본 임금이 50달러이기 때문이다. 만약 생산하지 않는다면 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열대지방 노동착취공장의 처참하고 암울한 세계이다. “우리는 기계 앞의 기계입니다”, 한국 치싱(Chih Hsing) 의류회사의 젊은 노동자는 털어놓는다. “기계 앞에 앉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 것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엘레나도 사표를 내기 전까지 3년간 아시아 회사에서 일했다. “우리는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는 실수를 하면 손이나 머리를 때립니다. 마치 당나귀나 한 마리의 짐승처럼. 물 한잔을 마시기 위해서 잠시 일을 멈추기라도 하면 그 즉시 혼쭐이 납니다. 기본급은 2주에 22달러입니다. 저는 항상 아침 7시에 도착해서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저는 4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2시간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불합니다.” 엘레나는 이후로 바지를 만드는

(1992),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40%(1993)를 차지한다. [“마킬라 산업에서 고용 성장”,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의 경제에 대한 예비고찰 1996. UN산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 경제 위원회, 미국, 뉴욕, 1996. 12. 19]

미국인 회사인 밀스 킬러에서 일해왔다. “치니토스⁴⁾는 최악입니다. 미국인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문제는 니카라과 관리자입니다. 그들은 외국인보다 더 나쁩니다!”

대만의 회사인 니엔 싱에 고용된 한 여성은 환멸감을 나타냈다. “니카라과인 감독이 있는데 중국인만큼 우리를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지 한 벌 잘못 만들어도 당신은 해고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면 그녀는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왜냐고 물으면 그녀는 ‘네가 나에게 말대꾸를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논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바로 관리자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국인 관리자와 친하기 때문에 그들은 와서 당신을 해고합니다.”

주 17달러 50센트의 기본 임금 때문에(이것은 그녀가 자주 버스비를 끼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엘레나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일요일에도 자주 일을 한다.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초과 근무입니다. 그들도 그것을 매우 원하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신학기의 시작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주요 구매 시즌이 되기 전에 두 달의 정신없는 기간이 있다. 니엔 싱에서 역시 일하고 있는 모니카는 말한다. “이 때가 그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오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집에 갈 수 없다. 상품이 내일 선적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우리는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마치 강제노동을 구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은 새벽 2시까지 일해야 합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혼나거나 해고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지옥같은 노동 후에 갑작스러운 불황 기간이 이어진다. 우리가 1월에 만났던 한 노동자는 “원료들이 도착하지 않아서 일거리가 없고 우리는 오직 기본급만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기는 잉여 노동력을 집으로 돌려보내기에 적당한 시기이다. 물론 아무런 임금 없이. “우리에게 그것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 치니토스(The chinitos)는 “작은 중국”이라는 뜻으로 마킬라의 세계에서 모든 아시아인들은 그들이 한국인이든, 홍콩인이든, 대만인이든 다 중국인이다. 페루에서 알프레도 후지모리 대통령(일본인 후예)이 그러하듯이.

몹시 돈이 필요하거든요.”라고 그는 탄식한다. 정오에 날카롭게 벨이 울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황급히 쏟아져 나온다. 그들은 집에서 가져온 차가운 빵을 꺼내거나 삶은 고기, 옥수수나 콩을 팔고 있는 여자들 주변에 모인다. “여기에서는 식사하는데 10코르도바스(1달러)가 듭니다. 교통비로 하루에 몇 분이 더 지출됩니다. 6일 동안 거의 80코르도바스가 드는데 우리는 겨우 160코르도바스만을 벌뿐입니다.” 그들은 운이 좋으면 나무 그늘에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태양 아래 공장을 둘러싼 콘크리트에서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 “겨울에는 상황이 더 나쁩니다. 빗속에 서 있는 털 빠진 닭과 같죠. 우리는 간식당을 요구했습니다”라고 대만인 소유의 포텍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노동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사장은 우리에게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벤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밭 위에서 먹습니다.” 근처에 있는 첸텍스(Chentex)의 높은 굴뚝은 두터운 검은 연기를 내뿜고, 바람이 불어 음식을 먹고 있는 그들 위로 그 연기가 내려온다.

어떤 공장은 1,000명당 4개의 화장실을, 또 다른 공장은 1,500명당 8개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 불결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몇몇 아시아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중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티켓을 요청하도록 하고, 하루에 오직 한번만 허락한다. “만약 3분 이상이 걸린다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끌어냅니다.”

노동현장에서의 죽음

1997년 11월 18일에 21살의 니엔싱 노동자인 오스카르 리바는 그의 작업장에 갔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그가 작업하는 원심분리기가 전기쇼크를 준다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 그는 화학약품인 염소를 다루면서도 장갑이나 마스크도 쓰지 않고, 오염된 공기와 땅에도 불구하고 부츠도 신지 않은 채, 기계 앞으로 가서 시작 버튼을 눌렀다. 그는 380kw의 쇼크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

했다. 자유무역지대의 건물을 관리하는 22살의 데이비드 구티에레스 플로레스도 12월 13일에 감전되었다. 1998년 1월 8일에 니카라과 노동부는 1997년 라스 메르세데스 자유무역지대에서 662명의 산업재해가 있었고 3명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음 날인 1월 9일 오전 7시 30분, 이번에는 온두라스의 엘 프레그레 소에 있는 인터스트리아스 달리(사장은 미스터 킹으로 알려져 있는 김영기)에서 일하던 카르멘 마틸루 제론이라는 젊은이가 외출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아팠고 긴급히 의사에게 진찰을 받기를 원했지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시간 후에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그날 아침에 그녀는 죽었다. 온두라스의 사회안전기구(IHSS) 산하 병원에 그녀가 실려갔으나, 병원측은 그녀가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에 대한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온두라스의 바짝 메마르고 확실히 매력 없는 사업 도시인 산 페드로 술라는 90,000여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193개 기업이 '마킬라 지대'의 관문이다. 카리브해안의 푸에르토 코르테스까지 약 40킬로미터까지 늘어져 있는 이 지대는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17개의 공업단지 대다수의 본거지이다(15개가 추가로 계획중이다). 온두라스 마킬라도라 협회(AHM)은 방어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고들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마킬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자살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른 산업에서보다 비율로 본다면 훨씬 적다"고 루이스 펠리페 몰리나는 말한다. 다음 수치를 보자. "마킬라에서 평균적으로 최소 임금은 일당 40램피라스(3달러)이다. 다른 산업에서는 30램피라스이다." 1996년에 그 지독한 노동시간과 초과 근무는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한 달에 대략 136달러까지 올라가게 했다.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

산 페드로 술라의 북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코르마 근처의 산 미겔 단지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도시이다. 그곳의 인구는 1974년 3만 6천 명에서 오늘날 10만 6천명까지 증가했다. 쾌적한 초원 위에

세워진("투자자들은 녹색공간을 좋아합니다"라고 우리의 가이드는 설명했다) 온두라스의 술라텍스 공장은 절대 감옥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곳은 쾌적한 간이식당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들에게 오전과 오후에 한번씩 각각 15분간의 휴식을 허용한다. 앳된 젊은이들(그들은 대부분 여성이다)의 눈이 티셔츠를 만드는 재봉틀을 쫓고 있고, 배경음악이 내온 불빛이 비치는 긴 통로에서의 기계소리와 어울어진다.

유쾌한 루이스 관 유포아 감독이 농담을 한다. "매일, 생리와 임신, 아픈 어린 아이 또는 집을 나가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돌보면서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쉽지만은 않다." 그 남자는 기술자이지 노예관리자가 아니다. 그는 '기계'의 한 부분인 노동자이다. 그는 간단히 말한다. "그래요, 그들은 매우 젊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꺼리낌없이 말한다. "만약 그들이 더 나이가 들었다면 그들은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⁵⁾." 미싱사가 필사적인 속도로 원피스를 만들어낼 때 감독관은 뒤에 서서 손에 시계를 들고 그들이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감독한다.

거의 대부분 혼자여서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아내와 어머니들은 남성들에 비해 더욱 유순하다. 그들은 또한 이런 종류의 노동에 있어서 더 숙련된 존재라는 이점을 갖고 있다⁶⁾. 술라텍스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는 일의 속도이다. 그러나 모든 마킬라가 술라텍스 같지만은 않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두라스까지, 과테말라에서 니카라과까지 협박이나 성희롱과 강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들이 있다. 니카라과의 산 디니스타 노조(CST)의 페르도 오르테가 사무총장은 말한다. 만약 여성이 임신하고 기계를 다루는 노동을 하면, 그들은 그녀를 내보내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곳으로 옮긴다. 몇몇은 견뎌내다가 결국 힘든 일때문에 유산을 한다. 그 많은 여성들이 갖가지 구실로 해고당한다. 목적은 수유기간 동안 여성들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석 달의 휴가

5) 중앙 아메리카에서 마킬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23-25세이다.

["Growth in Employment in the Maquila Industry", op. cit.]

6) 마킬라에서 여성들은 어디서나 다수이다. 멕시코(1995)에서 58%, 코스타리카에서 60-62%, 온두라스에서 72-75%, 과테말라(1993)에서 78%, 도미니카공화국에서 (1992)60%. ["Growth in Employment in the Maquila Industry", op. cit.]

기간 동안 산전산후 급여를 지불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1997년 5월 말경, 온두라스 라세이바에 있는 한국 기업 핀두의 한 공장은 200명 규모로 만들어졌으나 420명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다. 일주일동안 6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기절했다.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나치게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고, 높은 온도와 환기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전염적 히스테리'였다고 한다. 그리고 1월 10일에 원창 마킬라에서 일하고 있는 600명의 젊은 여성 중 30명이상이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온두라스의 민간기업위원회 위원장 후안 벤데크는 단지 "이러한 집단 혼절은 1997년 1조 달러를 수출한 이 분야의 활동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졌다.

온두라스의 마킬라가 종종 조사를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온두라스 마킬라도라 협회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작성된 문서는 아주 노골적이다. "이 분야에서 온두라스 마킬라도라 협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마킬라 산업 보호) 중 하나는 이 산업에서 온두라스가 아동노동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운영자들이 미국 의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⁷⁾."

미국 단체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진 주장은, 문제의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주장들은 1996년 9월 16일 글로벌 패션에서 일했던 노동자인 웬디 디아즈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었다. '워싱턴 워드 그룹'이라는 로비 회사의 지원을 받은 온두라스 마킬라도라 협회는 '온두라스 국내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⁸⁾'이라며 분개했다. 온두라스 마킬라도라 협회는 의원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후안 카를로스 보시오와 미국 노동부의 로버트 호울리는 선택적으로 몇 회 사들을 조사하고 시찰한 후에 어린이 노예노동은 없다고 보고했다.

온두라스 마킬라도라 협회와 정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비록 그들이 노예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킬라 내에서 어린이 노동의 문제는 남아

7) "Plan de trabajo realizado en 1996", Memoria 1996, Association hondurena de maquiladores.

8) 위 글

있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 인권보호위원회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최근의 보고를 보자. 1997년 상반기에 이 위원회에 제기된 마킬라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 86건 중에서 하나는 14살 소년에 의한 것이며, 9건은 17세의 노동자로부터 제기되었다(전체의 약 11.7%에 해당한다).⁹⁾

노동조합원에 대한 협박

온두라스 독립 노동자연맹(Honduras Independent Workers Federation, FITH) 간사 하이로 아일라는 그의 작은 사무실에서 절망적인 표정을 취했다. "때때로 우리는 희망이라곤 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대적이죠." 그는 방금 푸에르토 코르테스에서 돌아왔다. "거기에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심지어 노동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많은 사례들이 한국기업(트란스파시피코)에서 보고되었다. 그리고 1997년 11월 27일과 12월 4일 사이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 그들이 일터로 되돌아 왔을 때 12월 19일까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19일 그 날 142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지급 받고 해고되었다. 현재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들만이 복직되었다. 끔찍한 위기의 기간 동안에 노동자들은 해고되느니 입다물고 견뎌내고 초과착취 당하는 편을 택했다.

"우리가 공장에 도착하면, 그들은 이리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 해라. 마음에 들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라. 바깥에 당신을 대신하기를 기다리는 10명의 사람이 있다. 불행히도 노동조합은 없다.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금지된다'라는 표지판만 없을 뿐이다." 라고 한 니카라과 여성은 말한다.

1995년 8월 21일에 데보라 구스만이 과테말라의 M&J 모다스 공장을 떠날 때 그녀는 선팅을 한 자동차 한 대를 목격했다. 잠시 후에 한 어린아이가 자동차 탑승자로부터 그녀에게 편지를 주었다. 거기에는

9) Proyecto maquila, first semester 1997, Oficina Regional Codeh Zona norte, San Pedro Sula, Cortes.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억해라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을 오랜 동안 그대로 두었다. 만약 네가 너의 아이를 사랑한다면 내가 요구받아온 것을 너의 남편에게 말해라. 그는 지금 결정을 해야한다. 노조를 떠나 던가 아니면 그의 아내와 아이가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 아마티틀란(Amatitlan) 공장의 폐쇄에 다른 루나필 SA 내 분쟁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1994년 5월부터 데보라의 남편 펠릭스 곤잘레스는 협박을 당해왔고 죽음의 위협을 겪었다. 작업의 폐쇄에 따라 200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노동자들을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당했다. 그 이전 2월 28일에 구스만 부인 자신도 납치 당해서 24시간 동안 억류당했다. 그리고 집으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풀려나기 전까지 약물 투입을 당하고 구타당했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런 종류의 위협은 가볍게 취급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3월 19일에 임프레사 마킬라도라 RCA 노동조합의 알레한데르 요바니 고메스 총무의 시체가 과테말라 시티의 갈릴레아와 엘리몬 근처의 협곡에서 발견되었다. 노조 인정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공장의 한국 소유주들과의 분쟁에 70여 명의 노동자가 개입되어 있었다. 협상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던 실비아 릴리아 에스코바르는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활동을 한다면 그녀는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영자에 의해 종종 경고 받았다. 마킬라를 방문한 노동부의 조사관은 그녀에게 공장의 경영자와 소유자 앞에서 “노동조합원은 시궁창에 박혀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거리낌없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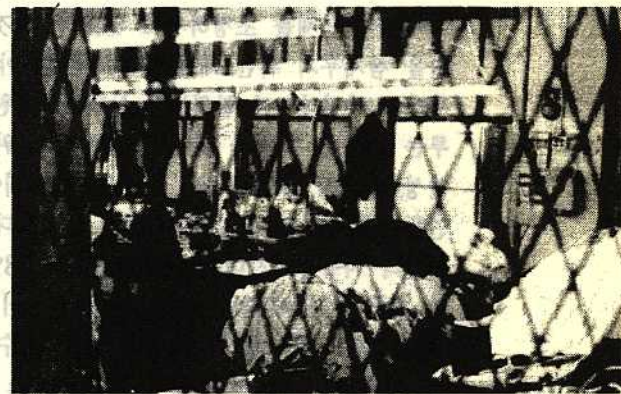
북미 소비자들의 역할

이런 정도의 억압은 산디니스타 이후 니카라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93년 한국 포텍스사의 노동자들이 부당 대우와 성추행에 맞서 파업을 했을 때 관리자들이 화기를 사용했다. 공기 중에 쏘면서, 그리고 저항하는 여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태권도를 동원했다. 이러한 사건에 따라 산디니스타 노동조합은 비밀 노동자위원회를 설립했다. 1996년 8월 16일 포텍스사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

하기로 결정했다. 합법화 과정에 비올레다 차모로 정부의 노동부가 놓은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합 지도부의 해고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첫 번째 노동조합이 12월 23일에 승인되었다. 타이완의 니안 싱, 이태리의 에쿠, 미국의 펀데이션 커피도에서 노동조합 세 곳이 더 결성되었다. 그리고 세 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펀데이션 커피도에서 해고되었다.

온두라스 마킬라에서 30개의 노동조합이 시작되었다가 폐쇄당했다. 하이로 아알라는 “합법적 지위를 요구하면 노동감독관은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건네줍니다.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떠나기를 원하고 해고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기를 원하는 때에 그는 우리와 아무 거리낌없이 연락을 취합니다. 항상 그 즉시 해고죠”라고 말한다. 노동조합문제를 다루는 두개의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는 노사간 양자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정 위원회이다. 그러나 노조원들에 따르면 이것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텅 빈 유리진열장에 지나지 않는다.’

1997년 5월 수천 명의 마나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노동조합 지도자 패드로 오르테가가 항의하자 니안 싱 그룹의 대표 루카스 멩웨이는 “명령은 우리가 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경고했다. “만약 이러한 노동조합들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멕시코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6천 5백만 코르도바스(6백 5만 달러)를 이 공업지구에 투자해왔다.” 이러한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서 니카라과를 포함한 이 지역의 정부들은 공개적으로 노예감독자들의 편을 든다. “정부는 그들이 대체할 수 없는 수



노동착취공장의 내부

천의 일자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동의해야만 한다.” 많은 판돈이 걸려있는 셈이다. 자신의 나라에서 미국 수출용 섬유 할당량을 채웠던 아시아 기업들에게 특혜 협정을 가진 중앙아메리카는 수출 증대를 위한 기반이다. (여러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 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20센트의 임금을 주고 만드는 바지 한 벌은 뉴욕이나 보스턴, 시카고 등지에서는 적어도 20달러의 가격에 팔린다.

몇 달의 투쟁 후, 북미 거대기업인 필립스 반 헤이즌 소속의 과테말라 의류회사인 카모사 노동자들은 1997년 8월 14일에 단체협약에서 명을 받았다. 이 나라 자유무역지대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협정이며 중앙아메리카의 어떠한 자유무역지대에서 체결된 몇 안되는 협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마킬라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조건에 대한 소비자단체, 인권단체와 미국의 노동조합이 벌였던 몇 년의 작업은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다. 온두라스에서 라리마에 위치한 한국 마킬라 기미사는 드물게 북미 소비자들의 대응의 영향으로 그들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미국 회사와의 계약이 파기되어 파산했다. 계약을 갱신하려는 기업은 인권위원회, 여성단체 코메두(COMEDHU), 카톨릭 사회구조 기구(CARITAS) 산 페드로 슬라지부, 온두라스 예수회와 함께 감시 협정을 맺어야 한다.

사태를 파악한 1997년 7월 28일과 29일에 산 페드로 슬라에서 온두라스의 하청업자들은 기업윤리강령에 서명했는데 협상 자리에 노동조합이나 인권단체를 초청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진짜 발전인지 단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계략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몇 달 전에 온두라스 마킬라도라 협회는 노동법개정위원회와 마킬라도라 산업을 다루는 분과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회의를 열었다. 생산성, 효율성, 노동자들의 휴일 등 포함되어야 하는 요점들에 대한 제안들이 온두라스 사기업위원회에 보내졌다.

마킬라 자유무역지대에서 1997년 5월 28일, 2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인 새로운 16,000평방미터의 거대 빌딩이 초석이 놓여졌다. 거기에서 6천여 명이 일하게 될 것이다. 매우 보수적인 대통령 아날도 알레만의 호의적인 시선 하에서 콜로넬 루카스 밈웨이 장관은 자신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떠벌렸다. “국민기업처럼, 우리는 새로운 노동법에 대

해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투자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정치화된 노동조합운동들이 시작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퍼뜨리는 국제적 캠페인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 페드로 오르테가는 대답한다. “정부는 나를 기소했고 니카라과를 동요시키기 위한 국제적 음모를 조직화했다는 명목으로 반노동조합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투자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자주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마킬라가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단체협약, 노동법, 그리고 노동자의 존엄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 출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998년 3월호

싯다와 그녀의 딸들: 인도 초착취지대의 여성노동자들*

TK 라자락쉬미

TK 라자락쉬미는 델리 근방의 수출자유지역 생계비 도표를 예로 들어 수출주도의 성장 정책을 채택한 시점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노동자에게 상식이하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폭로했다.

여성들은 그것을 “경계선”라고 부른다. 그녀들을 가뒤편은 철조망으로 된 담장에 하루 12시간 이상 갇혀있는 광경은 인도의 수도에서 24km 떨어진 노이다 수출자유지대의 가꿔진 잔디와 세련되게 보이는 건물의 외관 뒤에 숨겨져 있다.

그 내부는 열기로 가득 차 있고 지저분하며 위험하다. 철저한 보안을 명목으로 굴욕적인 빈틈없는 몸수색이 관례화 되어 있고 노조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땅 없고, 문맹이며, 기술도 없이) 끔찍한 조건과 굶주림 아래 일하는, 4천 여명에 이르는 이곳 여성들에게 ‘선택’이라는 말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녀는 임신 6개월이었다. 그녀의 아이는 뱃속에서 죽었다.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었고 우리는 나중에 알게되었다. 노동자들은 동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익명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8시간 이상을 서서 일해야만 했다고 한다.

“나는 채용당시에 결혼 사실을 숨겼다. 우리는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사설탁아소에 보낼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 집으로 보내야만 했다.”

1985년에 설립된 노이다 수출자유지대는 인도의 다른 유사한 여섯 개 지역 중 하나다. 여성들이 그곳 노동력의 40%를 구성한다. 아시아 전역의 수출자유지대와 같이 이곳 공장들도 가급적 미혼여성을 고용하기를 선호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다루기 쉽고 더 높은 생산력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1994-1996년 사이 인도의 공세적인 성장전략 추진으로 인해 같은 시기 남성노동자가 2배로 늘어났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 3배에 육박했다.

수출자유지대는 수출지향의 제조업 부문을 설립하려는 기업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서로 경쟁하도록 고안되어 발전도상국을 둘러싸고 급속하게 발달해 갔다. 여기서의 한가지 가정은 수출주도적 성장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이다.

뉴델리 교외의 공장지대 겸 주거 지역인 노이다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혜택에는 기업 세금 면제, 금융상품·원료·부속품 수입시 세금 면제, 그리고 다른 생산품들에 대한 소비세 및 부과세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은 노이다 수출자유지대를 공익 사업체로 승인하여 쟁의 조정 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파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기록적인 이윤 축적

놀랄 것도 없이, 노이다 수출자유지대의 총 수출가치는 1990-1991년에 7억 2천만 루피(미화로 1천 680만 달러)에서 1997-1998년에는 60억 4천만 루피(미화로 1억 4,100만 달러)로 증가되는 등, 전례 없는 이윤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생활에는 조금

What Does Nike Pay Its People?

Nike Spokesman
Tiger Woods



\$55,555/per day
477,773,000Rp

Indonesian Shoe
Factory Worker



\$1.25/per day
10,750Rp

Nike CEO
Phil Knight



\$5.8 Billion net worth
49,890,000,000,000Rp

나이키는 피고용인들에게 벌어나 지불할까? 나이키 대변인 타이거 우즈 1일 55,555달러, 인도네시아 신발 공장 노동자 1일 1.25달러, 나이키 사장 필 나이츠 58억 달러 상당

의 원기도 붙어넣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식설, 깨끗한 식수, 그리고 교육과 건강 복지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빈민가의 혼잡하고 비참한 생활 조건을 견뎌내야만 한다.

특히 여성노동자 경우에 모성보호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제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연기금과 상여금마저 주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인도 가멕스(의류품 수출공장으로 600명의 여성과 100명의 남성을 고용되어 있다)의 관리자인 드허라지 싱은 고용관행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말한다.

“우리는 여성고용인들로 인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여성은 관리가 용이하다. 회사는 보안제도를 철저히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18-30세 사이의 미혼여성을 선호한다.” 그는 이어서 기혼 여성들은 모성휴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가멕스는 탁아소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사실 그 탁아소는 널빤지 상자라 가득차 있는 창고와 다름없다. 가멕스 여성 관리인 사비트리(가명)는 차별적인 관행을 확인해주었다. 결혼한 여성노동자는 퇴출된다고 그녀는 말한다. 신규 모집 시에 여성들은 강제적인 임신테스트를 받아야만 한다. 임신한 여성들에게 고

용을 불허된다. 초과 근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강요되는데 그렇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적은 임금을 받는다.

참혹함

하지만 그 ‘경계선’ 안에서 여성들은 임신하게 되는데 그들과 아이들의 건강상황은 매우 참혹하다. 신생아들 사이의 유산·조산·사망은 임신부 빈혈과 영양 빈곤 상태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보건복지사들은 말한다.

노이다 수출자유지대 근처 빈민촌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료소를 경영해온 의사 프라티바 샤마는 착취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여성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을 두려워하여 빈번하게 비위생적인 낙태시술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골반염, 심한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빈혈증은 심각하고 만성적 성격을 띤다.

샤마는 유산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것은 강요된 초과 근무에 가사노동의 짐마저 떠안은 여성의 이중고 때문이라고 말한다. 수출자유지대 빈민가에서 급격히 증가한 돌팔이 의사들이 돈을 받고 낙태를 시술한다. 정부 병원의 위협적인 의사를 대면하고 싶지 않은 여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그 낙태소를 찾는다. “나는 많은 끔찍한 사건들을 보았다”라고 샤마는 말한다. “임신 5개월의 한 여성은 불법적인 낙태로 인해 천공이 생겼다.”

일상 투쟁

그러나 끔찍함은 병원 밖 여성의 일상에서 더욱 잘 목격된다. 그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두 딸(그들 중 한 명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다)을 거느린 가장으로 수술장갑을 생산하는 공장 일하는 네 팔 이주노동자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전투 그 자체이다. 나 혼자 수입으로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딸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집은 작은 방 하나다. 그리고 일곱 식구가 화장실 하나를 사용한다. 결혼한 딸은 1,800루피(미화 42달러)밖에 안되는 적은 월급 중에서 매달 500루피(미화 11달러 70센트)를 지불해야 하는 탁아소에 아이를 보낸다.

식당과 그녀의 딸들의 하루는 해 뜨기 전에 시작해서 한밤중에 끝난다. “아침에 남겨진 모든 일은 저녁에 해야 한다”며, 그녀는 그녀의 사위는 “단지 앉아 있거나 우리에게 명령만 한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남편과 시부모들로부터 아들을 낳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여성에게 유일하게 이로운 것은 그들을 착취하는 시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라고 샤마 박사는 지적한다. 식다는 말한다. “나는 나의 딸들이 독립적이길 바란다.”

* 출처: 제3세계 네트워크(<http://www.twinside.org.sg>) 1997년 7월

이·들·을·기·억·하·십·니·까 밥주걱 투쟁, 그리고 영원한 「평행선」*

[장면번호 #1: 98년 파업투쟁]

우리는 이제야 적의 진정한 실체와 직면하게 되었다.

어제는 함께 하던 그 길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한 전선에 있을 수 없다. 아니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전선을 그은 것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한다. 이제 그들과 우리는 평행선을 긋고 갈 수 밖에 없다. 영원한 평행선... 남성성과 여성, 마치 자본과 노동의 대립처럼 근원적인 대립의 전선을...

우리는 이렇게 투쟁했다.

“사수대 투쟁하는 분들 모두에게 밥 해다 대고, 식당에서 밥하고, 집에 가서 다시 아이들 챙기고, 빨리 와서 다시 투쟁하고... 실질적인 가장들이 우리들, 순진하고 말 잘 듣던 우리들이, 그런 우리들이 이제 그들과의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 그들 중 한 여성노동자는 투쟁에 앞서 자식들에게 일러둔다.

“만약에 엄마가 죽으면 니가 가지고 동생들 돌보고 살아라. 통장에 돈은 어디어디 들었으니 우선은 그것을 찾아서 살아라.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엄마는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무엇이 순진하고, 순종하던 우리들을 이렇게 벼랑 끝 위험을 각오한 투쟁으로 이끌었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왜 당하는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그들이 어떤지를 알았던 말인가?

“정부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던 그들의 맹세가 허공의 외침이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애초부터 동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단연코 한순간도...

[장면번호 #2: 정리해고]

동지에서 적으로 전환의 시간에 직면하다

98년 8월 22일 노사정 합의로 277명 정리해고
그중 식당여성노동자 144명은 노동조합 식당의 하청으로 이관

그리고 일년 후...

“노동조합이 식당을 인수한 후 노동조합의 직원으로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억울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당한 것이 우리만은 아니므로 ‘그나마 생계 유지책을 놓지 않아도 되었던 우리들은 나머지 133명보다는 나은 것이겠지’하며 위로를 삼았다.”

[장면번호 #3: 임시대의원대회장]

말 바꾸기

“노조는 정리해고자의 무급휴직자 복직 완료 후 6개월 이내까지 복직

및 계열사 재취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안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고자 수를 ‘277명’이라 적어 넣자고 요구하였다.

노조위원장(정갑득)은 “노사합의서 있습니다. 식당여성노동자들은 정리해고자 아십니까? 이 문구 정도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구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정리해고자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277명이라 해주십시오”라고 재차 요구하고, 결국 돌아온 대답은...

“더 이상 무리한 동의는... 여성조합원들 요구에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단협요구안에 이것을 해나간다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의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제기할 시점은 정리해고 문제를 먼저 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으로서는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장면번호 #5: 출근투쟁]

다시 시작된 ‘기약없는’ 투쟁

정리해고자 복직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는 ‘고용승계된 식당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복직투쟁에서 배제하고 갔다.

총 투표자 95명 중에서 찬성 88명, 반대 7명으로 출근투쟁이 가결되었다.

“하청받아서 일하면서 왜 투쟁을 하느냐는 것이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비 계단 밑에 앉아있고 경비들이 몇 줄로 지켜서 있었고, 우리의 출근투쟁을 막았으며,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덮쳐라’하자, 순식간에 덮쳐서 우리는 무참히 쓰러졌지.”

그들은 누구인가? 구사대는 들어왔지만 구노대도 있었던가?

“육신이 아픈 것 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협상은 끝났으나, 끝끝내 우리들의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서운하다, 분하다, 어찌 이것으로 오늘 이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

이제 전선이다. 바로 그들이 그은 전선에 이제 당당히 맞서려 한다.

[장면번호 #6: 노조앞 단식농성 돌입]

식당 여성노동자들은 해고자 신분보장을 노조에 요구하지만 신분보장은 심의 안건이 될 수 없음을 통보 받는다. 그리고 「노조 소식」 - “해고자 천막농성, 혼란만 가중”이라는 머리기사 보도

“조합원이 무섭기는 무서운지, 언론 공작하고 조합원들 여론 조작하려고 이런 글을 썼음이 분명하다구.” (들리는 바에 의하면 노조가 지역 신문의 보도를 통제했다고 한다.)

항의하러 들어간 노조사무실에서 그들의 얼굴은 그들과 우리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줬다. 실실 웃음을 쪼개고, 주변을 걸돌며 쳐다보고, 누군가는 ‘나가라’고 소리치고...

어디에선가 수없이 많이 본 장면이다. 바로 그들이 투쟁하며 봐왔던 자본가들, 권력을 가진 이 땅의 억압자들이 연출한 장면이었다. 점차 더욱 서슴없어진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그 야비한 표정과 몸짓, 행위



를 담은 장면을 돌려주고 있다. 그들이 싸운 대상으로부터 고스란히 배운 그 모습 그대로를.

[장면번호 #6: 마지막 양심(?)으로 마련된 증재회의]

우리쪽 증재안, “노조가 책임지고 정리하고... 해결한다”.

“아무리 노조라지만 100%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조가 책임지고’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여 단결하여 해결해 간다’라고 합시다”라며 말꼬리를 슬쩍 잡아 본질을 흐트리뜨리는 노조의 한 간부.

[장면번호 #7: 에필로그]

증재안을 다루는 회의에서 한 노동조합 간부는 우리를 “식당 아줌마들”이라 부른다. 이것이 그들이 명명하는 우리들의 이름이다. 그들은 우리를 동료나 동지로는, 더구나, ‘노동자’로는 결코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패배했다. 그러나 지금 패배의 아픔은 희미하고 ‘배신의 아픔’이 마음을 헤집고 쓰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눈을 떴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존재임을... 서로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The End.

1998년 8월에 시행된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는 노동조합과 현대자동차, 국민회의 그리고 정부의 합의하에 여성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은 대표적 사례였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어떻게 가부장제를 적절히 활용해서 반여성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이용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들 네 집단이 암묵적으로 합의했던 내용은 정리 해고 대상자에 일차적으로 식당 근무 여성노동자 170여명을 포함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측의 안은 노동조합의 반대없이 받아들여져서 이들을 정리해고 한 후 노동조합에서 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잉여 인력을 감축한다던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정리해고는 '잉여 인력이 아닌' 여성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해고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었다. 그것은 단지 부당노동행위일 뿐이었다.

정리해고 대상이 된 식당 여성노동자들은 회사측이 자신들을 정리해고해야 할 필요성이 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회사측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식당 업무를 하청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왔으며 이 연장선에서 이번 일이 진행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우선 식당 업무 종사자가 회사측의 주장처럼 잉여 인력도 아니고, 오히려 자연 감원으로 인해 노동 강도가 이전보다 더 강화되어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를 정리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뿐만 아니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의 1순위로 삼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근거이다.

노동조합은 홍보용으로 만든 자료에서 '정리해고를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할 경우 공평한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고 언명했다. 그런데 만약 최종적인 정리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평한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노동조합에서 주장한다면,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일은 한국의 구조조정과정에 여러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일부일 따름이다.

농협에서, 기업중앙회에서, 금융업 곳곳에서, 무수한 사업장에 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여성들이 세계화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들은 여성들이 온순하고, 순종적이라 자신들의 음모에 저항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의 그릇된 믿음을 깨뜨릴 때이다. 여성들의 투쟁으로.

*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에서 만든 「평행선」(연출: 서은주, 이혜란)이라는 작품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세계화 시대의 동남아시아 성매매*

최전승민**

작년 9월 군산매매추진지역 화재 참사는 한국 성매매¹⁾ 여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었는지는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비록 화재와 여성들의 죽음으로 보다 큰 경악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어떻게 저렇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을까'라며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다. 그런데 군산 여성들의 감금, 폭력, 그리고 착취는 사실상 너무나 광범위한 현상으로, 한국에서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전세계에서 그러하다.

세계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IMF 구조조정, 세계은행의 외채, WTO가 강제하고 있는 자유무역과 규제완화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자들은 이미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여성이

1)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윤락' 또는 '매매춘'이라고 지칭하고, 이 중 그나마 덜 반여성적 개념으로 '매매춘'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와 나란히 사용할 경우, '매매춘'은 자발성을, '인신매매'는 강제성을 암묵적으로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강요된 자발성'이라는 맥락에서, 그래서 매매춘과 인신매매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맥락에서 이 두 개념을 '성매매'로 통일하여 지칭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는 통상적인 매매춘 뿐만 아니라 엔터테이너, 접대부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라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초국적 자본은 보다 더 값싸고 순응적인 노동을 찾아 지구상을 돌아다니며 현지 여성들을 착취하는가하면, 빈곤을 피해 선진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을 착취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착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악한 상황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성매매는 단순히 한 국가 내에서의 성산업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이전 시기의 성매매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가 수적으로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로 인한 국제노동분업이 활발해지는 것과 비례하여 많은 여성들이 더욱 값싸게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팔려간 여성들은 인신매매, 폭력과 노예화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세계화의 언저리에 놓여있는 제3세계 여성들에게 성매매의 길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어가고 있다.

동남아시아 - 국제 성매매의 시각지대

'성매매'이라고 하면 곧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이 생각날 정도로 동남아시아의 성매매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1년에 약 20만에서 25만 명의 동남아시아 여성과 아동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국제 인신매매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이다. 이 중 약 60%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팔려나가고 나머지 40%가 세계의 기타 지역으로 나간다. 미국으로 팔려나간 4만에서 5만 사이의 여성과 아동 중 60%가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1990년과 97년 사이 약 20만 명의 여성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인도, 파키스탄 또는 중동으로 인신매매 당했으며, 인도의 매음굴에서는 약 16만명의 네팔 여성과 소녀들이 일하고 있다. 매달 200여명의 네팔 여성들이 인도의 도시들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²⁾ 1990년에 들어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여성들은 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태국 치안마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중 50%가 미얀마 정글 출신의 가난

2) 「Trafficking in Migrants」, 국제이주기구(IOM) 계간 소식지 20호 (1999년 12월)

한 여성들이다. 태국 여성들은 태국보다 더욱 발전한 다른 아시아 국가 또는 서구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여성들 역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중동 등으로 이주하고 있다.³⁾ 한국도 역시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 '엔터테이너'로 와서 기획사와 포주들에게 속아 결국에는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필리핀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짓밟힌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다지 놀랍지 않은 현상이다. 한국에 끌려와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필리핀 여성들의 이야기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적 성매매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국제 기획사들과 포주들은 가난한 여성들에게 '엔터테이너'나 '가정부'와 같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또는 보다 경제사정이 나은 국가의 신부로 주선해주겠다고 그럴싸하게 유혹하여 이들을 배에 실어 팔아 넘기고, 팔려간 여성들은 결국 대상국에서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10살 안팎의 소녀들도 고된 강제노동에 시달리던가 호르몬 주사를 맞아가면서 '고객'을 받도록 강요받는다. 국제 결혼 중매인들을 가부장제에 길들여져 순종적이면서 그들의 처지가 가난하여 더욱 그 처지를 헤쳐 나올 수 없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주문 판매'하여 째깍한 수익을 챙기며, 이들을 수입한 가부장들은 여성들을 강요된 '순종성'의 굴레 속에 결혼이라는 합법적 제도로 묶어버린다. 포주들은 끌려온 여성들을 1만5천에서 2만 달러 정도에 사들이고 최근에는 포주들끼리 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단기간 여성들을 '빌려주는' 형태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포주들이 여성들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사실상 여성들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준 포주에게 자동적으로 수백 달러의 부채가 생기고 이를 빌미로 포주들은 여성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온갖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여성

3) 「Combating Trafficking in South-East Asia -A Review of Policy and Programme Responses」, 국제이주기구(IOM) 연구보고서 2000년 2월 호

들은 성'매매'가 아닌 사실상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

'가장 낮은 직업'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산업으로

자국 내에서도 국제적으로 팔려나가는 여성들의 '원죄'는 '가난한 여성'이라는 것 밖에 없다. 이 가난함은 냉천 시대 군사주의에 의해 고착화 또는 이용되었으며, 지금의 국제적 성매매의 발판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군사주의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를 형성해왔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성매매가 발달하게 된 데에는 미군 주둔이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주의의 발현은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쟁으로 빈곤과 경제 종속을 고착화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여성들이 치루어야만 했다. 미국은 이 지역에 투입된 젊은 미군들의 군기를 확립하고 군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R&R' (Rest and Recreation) 협정을 맺었다. 즉, 미군들을 위한 '휴식과 오락'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들의 '휴식과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만만한' 존재로 가난한 여성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휴식과 오락'이 무엇이었던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자명하다. 이것은 바로 한국 기지촌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냉전이 끝난 지금도 아시아 지역에 미국 군사주의의 잔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주들이 집단적 성매매의 째깍한 수익성을 맛보았기 때문에, 포주들은 미군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여성들을 이용한 '장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게다가 세계은행의 적극적인 추천 하에, 아시아 정부들 역시 여성의 육체가 외화 벌이에 훌륭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관광산업과 맞물린 성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한국의 포주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착취가 애국심의 발현이라고 '위로'할 정도였다. 어느 새 아시아의 성매매는 자본주의적 대량생산체제의 모습을 띄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성매매 사업가들은 또 다

른 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군사주의에 기반한 미군들의 '억제된 욕구'를 해소해주는 것, 또는 일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에서 이제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투기와 함께 움직이는 국제조직폭력배의 이윤 축적에 종사하는 상황이 되었다. 성매매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서나 피억압 계층의 가난한 여성들이었다. 그런데 임금노동의 비정규직화, 생계의 기반인 생태계의 파괴, 공공부문의 폐지 또는 축소,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조정의 효과는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를 더욱 심화시켜, 결국 성매매는 가난한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버렸다. 여성의 육체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홀륭한' 수출품이 되었다. 세계화 시대에 성매매는 다른 여타의 떠오르는 새로운 산업과 더불어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산업 중 하나를 자랑하는데, 성산업의 사업가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국제 마약과 무기산업을 이끄는 이들의 수입과 맞먹는다.⁴⁾ 전쟁의 긴장이 팽배했던 시절 군기 확립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현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아시아 여성들을 이용하였다면, 이제는 세계화라는 또 다른 전쟁에 허덕이고 있는 다국적 기업 종사자들의 '군기' 확립과 저임금 노동력 수급을 위해 자본과 현지 정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력 수출이 가장 높은 필리핀의 정부는 일찍이 노동력 수출, 특히 여성의 수출이 외화벌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깨닫고 이를 공공연하게 격려하고 있다. 서구에서처럼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종적이고 값싼 아시아 여성들은 부유한 남성들의 선호 대상이 되었다. 여행사들은 기발하고 유혹적인 광고를 통해 아시아 여성과의 '신비로운 여행'을 주선하고, 이 광고에 현혹된 부유한 남성들은 '동양적 신비'를 자신이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에 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품종'도 다양화되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조합의 여성이든 싼값에 구할 수 있

4) Jyoti Sanghera, 「In the Belly of the Beast : Sex Trade, Prostitution and Globalisation」, 1997년 2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ia and Pacific Regional Consultation on Prostitution (매매춘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 자료집

게 되었다. 이렇듯, 여성과 성매매의 현실은 제3세계가 선진국에 종속되게 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조건들과 별도로 사고될 수 없다. 예전에는 제국주의 하에서, 그리고 지금은 세계화 아래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천연 자원과 저임금 노동의 주요 공급처를 맡게 되었다. 자원과 노동의 흐름은 일방적으로 제3세계에서 북반구에 있는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북반구 선진국이 부의 집중과 제3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제3세계의 자원, 노동과 자본을 착취하여 가능했던 것이다. 세계화로 인한 제3세계와 선진국간의 빈부 격차는 제3세계 여성들에게 유례없는 광범위한 빈곤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빈곤화는 여성들에게 저임금의 초착취 노동 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으며, 노동착취공장이나 성매매가 세계화 시대에 제3세계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세계적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은 기존의 여성 억압을 정당화시키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그리고 성에 대한 이중도덕의 잣대와 교묘하게 결합하여, 성매매를 가장 적은 자본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창출해내는 산업으로 부상하게 하였다. 이 속에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성매매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이미 많은 국제 기구들과 인권단체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중에는 도덕주의적 입장에서 불쌍하고 타락한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도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소재의 CATW(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나 태국에 소재한 GAATW(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등의 여성 NGO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성매매와의

밀접한 관계에 착목하면서 성매매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고 있다. 그



호주 활동가들, "남성들은 여성들을 일주일에 6만 번 산다."

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화하고 정치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사회의 쓰레기로 낙인찍혀 숨어 지내야 했던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다. 국가 또는 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여성들은 '노동자'⁵⁾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노동권 보호와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1998년 5월, 세계 12개국 대표자들이 대만에 모여 '세계 성매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행동 포럼'을 개최하였다. 사회활동가들과 더불어 성매매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참가자들은 성매매의 합법화와 성매매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은 성매매를 불법화하려는 대만 정부에 항의하면서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⁶⁾ 인

5) 매매춘 여성들을 정치화시켜내고 노동자로서의 규정을 위해 해외의 많은 단체들은 'prostitutes'가 아닌 'sex workers'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sex workers'를 한국어로는 '성매매 노동자'로 번역하는 추세이다.

6) '차이나포스트' 1998년 5월 25일 자, 5월 27일 자

도의 더바 마히라 사만와야 위원회(Durbar Mahila Samanwaya Committee)는 서벵갈 지역 3만 명의 성매매 종사자들(남성과 성전환자들도 포함된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인도 전역에 약 30개 지부를 두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1995년에 설립되어 그 다음 해 4월에 벵갈 지역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 1,500명의 성매매 종사자들이 참가하였다. 97년에는 인도에서 가장 빈민층이 많은 도시인 캘커타에서 '전국 성매매 노동자 회의'를 개최하면서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억압의 최하층을 이루고 있는 자신들을 '노동자'임을 선언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정부의 모든 범죄화 음모를 규탄하였다.⁷⁾ 그 외에 대만의 엠파워(Empower)나 홍콩의 지텡(Zi Teng) 등은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 '홍등가'에 풀뿌리 지원센터를 차려 정보 교류나 건강 검진 등을 실시하면서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

성매매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반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의제로!

성매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 한다. 그리고 마치 인간이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 있는 한, 성매매는 지속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성매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가장 오래된 착취와 억압'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하층 계급에 속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다는 사실은, 성매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계급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성매매가 돈벌이 수단으로서 두 주체간에 이루어진 합당한 거래라고 주장하곤 한다. 얼핏 이것은 진실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왜 유달리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지, 왜 성매매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 '노예'의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성매매 노동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낙인찍혀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또 한편, 성매매가 가부장제의 가장 오래된 착취와

7) 더바 마히라 사만와야 위원회, '전국 성매매 노동자 회의(First National Conference of Sex Workers)' 자료집

억압의 형태라고 한다면,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억압을 인정하고 거기에 수긍하는 매우 모순적인 투쟁일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사실상 자신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도덕주의를 빌미로 자신들을 착취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선전 포고이다. 인간의 소의를 유발하는 성매매를 포함한 모든 자본주의적 노동착취에 지금 당장 종지부를 찍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는 생존을 향한 절규이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노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 최소한 공정한 대가를 받고, 에이즈와 각종 성병에 걸리지 않을 건강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성매매 자체를 찬성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여성의 권리'에 한 표 던져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성매매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과 더불어, 제3세계적 연대와 국제주의적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국제적 성매매의 지도는 제3세계를 편입시키면서도 배제하는 세계화의 질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과 맞물려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국제화와 극단화는 이러한 빈곤화의 결과이자 동시에 원인이다. 이 시대의 가장 극악한, 그렇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고 광범위한 형태의 착취이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권·생존권 보장과 이를 기반한 정치세력화, 여성이 아닌 여성들을 착취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을 범죄화하고 규제하는 투쟁은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운동에서 중요한 의제로 채택되어야 한다.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사회진보연대' 3월 호에 실렸던 글을 보완한 것임.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세계화 반대 제3세계 여성팀

성매매용 여성 및 이동 인신매매, 국제적으로 폭발적 증가 추세*

줄리 할란드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사회적 붕괴로 인해 국제적인 섹스무역에 충당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달 국제이민기구(IOM)는 나토(NATO)의 세르비아 폭격이 끝난 이후 코소보에서 인신매매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유엔과 여타 국제기구들이 강제적인 매매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IOM은 또한 유엔과 국제구호기관의 직원들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위장한 채 성장 일로에 있는 매매춘 산업의 단골 고객이라고 비판했다. 많은 여성들이 매매춘 산업에 강제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코소보의 IOM 책임자인 파스쿠알레 루플리는 IOM이 지난 10월이래 이 지역에서 50명 이상의 여성들을 구출해냈지만, 이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IOM에 따르면 코소보에서 강제적으로 매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50% 이상이 구 소련의 몰도바 공화국 출신이며, 3분의 2 이상이 매매춘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여성들이 서유럽의 펜션은 일자리를 약속받았었다. 하지만 일단 고향을 떠나자마자 이들

은 여권을 빼앗겼으며, 500에서 1,500달러에 포주에게 팔렸다. 루폴리는 이러한 인신매매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IOM은 일년에 최대 50만명의 여성들이 서유럽으로 유입되어, 성산업에 강제 투입되고 있다고 추산한다. 다른 추산에 따르면 이 수치는 백만명까지 올라간다. 빈곤과 궁핍으로부터 탈출하는 데에 급급한 사람들이 불법적인 수단이나 범죄조직에 의존하게 되자 서유럽의 이민법은 점점 더 규제가 강화되었고, 이것이 인신매매를 가속화시켰다고 루폴리는 덧붙인다.

매매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출신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매년 약 5만명의 여성들이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필리핀, 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의 '공급지'로부터 인신매매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 생활수준의 과국적인 하락이라는 유사한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문제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소련과 동구 체제의 붕괴가 최근의 인신매매 증가 추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인신매매를 통해 서유럽으로 유입되는 여성의 대부분을 구 스탈린주의 국가 여성들이 차지한다는 사실은 이들 나라에서 자본주의 복구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 영국의 강제 매매춘에 대한 한 조사는 매매춘에 종사하고 여성들 대다수가 우크라이나 출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약 50만의 여성이 1991년 이래 70%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옛 소비에트 공화국을 떠났던 것이다. 북런던대학의 아동 및 여성학대문제 연구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이민 및 세관 관련 공무원들과 두 지역 경찰관 4분의 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400여명의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잉글랜드의 성산업으로 강제 유입되었으며, 런던의 뒷골목 매매춘 지역의 여성 중 60%가 인신매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하루에 최대 17시간을 일해야 한다. 이들의 수입은 매우 적거나 종종 아예 없기도 하다.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돈을 숙박, 음식,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포주와 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온 조직폭력배들에게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채무에 의한 강제노역의 근대적 변종인 셈이다. 폭력과 위협 때문에 이들은 도망치지도 못한다. 인신매매는 유럽 대륙에서 더욱 광범위하다. 특히 독일의 주요 도시들은 유럽에서 고수익 성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BBC의 한 보도는 역시 러시아 여성들이 이 나라의 '신종 백인 노예제'의 주요 구성원자들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 출처: 「인터내셔널뉴스」 101호(2000/6/15)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2000/6/8 (<http://www.wsws.org>)

성매매 노동자 선언문*

새로운 유령이 사회를 배회하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오랜 동안 음지에 숨어 있던 저 유령들이 인간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도 불안에 떠들고 있는지 모른다. 지난 몇 년 동안 성매매 노동자 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구조와 관계, 계급/젠더/섹슈얼리티 간의 상호연계성, 그리고 정치·도덕적 윤리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만들었다. 우리 운동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바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고 더불어 새로운 문제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매매 노동자 운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1992년부터 켈카터 최대 흥동가중 하나인 소나가치에서 운영되어 오던 성병 및 에이즈바이러스(HIV) 예방 프로그램 가운데 보건 노동자, 즉 '동배 교육자(Peer Educators)'라는 집단적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면서 함께 모이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성매매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을 촉발하고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최초의 상호 지원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소나가치 프로젝트가 시작될 무렵 우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와 더불어, 성매매 노동자와

고객 사이의 HIV 및 성병 확산 통제라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총체적 시각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우리는 다양한 감정적, 물질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과 건강의 질을 규정짓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회, 정치, 이데올로기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성적 행동으로만 단순하게 규정되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콘돔 사용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는 성매매 노동자들이 고객과의 성행위시에 발생해온 그간의 관행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호장치 없는 성행위의 위험에 대해 계몽하거나, 우리의 의사소통 및 협상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성매매 노동자가 어떻게 자신의 건강과 삶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성병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매매 노동자들이 고객에게 성행위마다 콘돔 사용을 강제할 수 있지 않는 한, 성매매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고객을 같은 지역 내 다른 성매매 노동자에게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차라리 자신의 건강을 희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몇몇 성매매 노동자들은 착취적인 마담이나 포주들에 의해 매우 밀착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과의 안전한 성행위에 관해 협상을 할 처지도 아니다. 만약 한 성매매 노동자가 고객이 별로 없거나, 소득의 대부분이 임대료에, 혹은 포주, 마담, 폭력배, 경찰에게 들어가는 상황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다면, 과연 콘돔 사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객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고객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여성, 특히 교육도 받지 못한, '타락한' 여성의 전형인 매매춘 여성으로부터 남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할 것인가? 매매춘 여성에게 오는 것 자체가 위험을 감수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사고가 그에게 당연히 내재되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경우 매매춘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은, 책임과 안전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지 않은가? 콘돔은 '완전한 쾌락'을 추

구하는 그에게는 쓸모 없는 방해물에 불과하지 않은가?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이 남성 역시 변변히 기거할 곳도 없는 가난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과연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만한 위치이거나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만큼 충분한 삶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고객들에게 콘돔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성매매 노동자들이 왜 자신의 애인이나 남편과의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매매와 사랑, 경계와 신뢰, 안전함과 친밀감 사이의 어떠한 저울질이 이러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사랑, 가족, 짝, 모성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성적 행위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렇게 성매매 노동자가 안전한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매우 단순한 문제를 통해 사실상 이 문제가 전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섹슈얼리티와 성매매 노동자들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형성하는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 속에 근본적으로 얽여져 있다. 1995년,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물질적 빈곤과 사회적 오명에 대한 투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성매매 노동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더바마허라 사만와야 위원회를 건설하게 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한 성매매 노동자 집단이 집회를 열고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성매매라는 직업의 옳고 그름에 관해 숨김없이 말했으며, 스스로를 성매매 노동자로 자각하고 규정하면서 정체성을 각인하고자 했다.

우리는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라는 노동 또한 어떠한 도덕상의 상태가 아니라 엄연한 직업이라 믿는다. 성매매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면, 그것이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매춘'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일군의 직업 여성들을 지칭하는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공중 보건, 성윤리, 사회의 안녕, 시민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여성이라는 하나의 동질적인 범주로 이들을 비하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이렇게 전형적인 범주에서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사회 지배계층의 체계적인 도덕적 충동을 일으키는 정화와 살균의 대상이 된다. 정치적, 혹은 개발의 의제를 이 논의에 도입한다면, 우리를 구출하고, 재활시키고, 개선시키고, 훈육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장황한 상투적 수단들과 상투적 프로젝트의 울가미에 우리는 갇혀 버린다. 자선 단체들은 우리를 구조하여 '안전한' 가정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개발 단체들은 '진' 매매춘 여성이라는 오명을 지워내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미약한 돈벌이 수단으로 우리를 '재활'시키려 하고, 경찰은 '비도덕적' 인신매매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주거 지역을 정기적으로 단속한다.

지배적 담론 내에서 우리에게 대한 인식이 덜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동정적일 때조차도 우리는 오명과 사회적 배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동정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며 아무런 자원도 힘도 없는 피해자로 간주한다. 대중 문화와 영화 속에서는 끊임없이 남성 영웅 또는 그가 대표하는 사회 안정을 위해 고생해서 얻은 소득과 '죄스러운' 삶의 방식을 기꺼이 포기하고 마침내는 목숨마저 내어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희생적이고 배려 넘치는 조역으로 등장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정당한 시민이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거부당하고 사회와 역사의 주변부로 추방당하고 있다.

성매매 노동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억압의 형태는 다른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절대로 행해질 수 없는 것들이다.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성매매 노동은 진정한 노동이 아니며, 도덕적 최악이라는 주장이 제시된다. 성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와 메커니즘이 외관상의 성적 도덕이나 사회 질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과 달리 성산업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관한 투명하고 합법적인 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공간도 전혀 없다.

우리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재활시키거나 매매춘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

리는 현실에서 성매매 노동자의 재활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가 매매춘 여성으로서, 그리고 도덕을 위반하고 위협한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재활이라는 것이 현실 가능하거나 심지어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난 실업율을 가진 국가에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수백만 명의 여성과 남성들의 생계수단을 앗아가려는 강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유사한 착취적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업 구조 내에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왜 우리, 성매매 노동자들도 성산업에 종사하면서 우리의 노동과 삶에 대해 보다 나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

성적 도덕성의 역사가 무엇인가?

인간의 다른 성향이나 욕구와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와 성적 욕구는 인간 존재 조건에 근본적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위에 대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사고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역사적이고 맥락적으로 구체화된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사회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제 구조와 상당히 반여성적인 윤리 속에 깊게 박혀 있다. 국가와 사회 구조는 우리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제한적이고 편협한 정의와 역할만을 인정할 뿐이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섹슈얼리티를 통해 표현되는 쾌락, 행복, 평온함, 친밀감 등은 채택되지 않는다. 우리는 문학과 미술을 통해 이를 둘러싼 묘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적 규칙과 규범은 오로지 가족 제도 내 결혼 관계라는 엄격한 범위 내에서만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성적 표현을 허용한다.

왜 우리는 여러 다른 표현, 경험, 표출 방식을 무시한 채 이렇게 협소하게 섹슈얼리티에 대한 경계선을 그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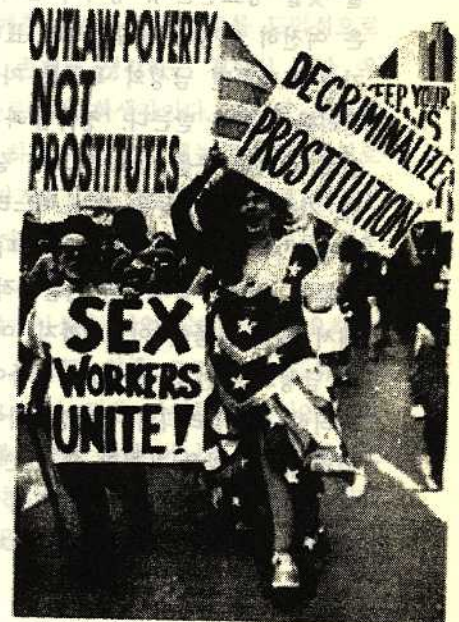
사적 소유와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성적 노동과 재생

산에 대한 통제가 필수적이다. 재산 상속은 합법적 상속인을 통해 유지되는데,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성관계만이 출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는 이성만을 커플로 인정한다. 성관계는 일차적으로, 그리고 거의 독점적으로 오로지 재생산의 도구로만 인식되며,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쾌락과 욕망의 모든 측면은 부정된다. 이성애만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으며 동성애는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정당성을 거부당하고, 더 나아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고 일탈적인 것으로 낙인찍힘으로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승인된 이성간의 결혼을 통해 재생산을 목적으로 한 것 이외에, 이것을 뛰어넘는 성행위와 섹슈얼리티에는 사회적 승인이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성은 일차적으로 쾌락과 친밀감을 위한 것이지 출산만의 목표는 아니라고 주장할 때,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모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일까? 단지 우리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가 합법적인 부모의 역할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

"매매춘 여성이 아닌 빈곤을 범죄화하라!"

에, 모성과 자녀 양육은 여성에게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일까? 분명 아니다. 우리는 모든 여성이 원한다면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가부장제는 모성만이 여성에게 유일한 일차적 목표로 규정하면서 여성의 재생산 기능과 사회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성매매 노동자 중 많은 여성들은 어머니이고,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사회적 기준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사



생아들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이지, 어느 남성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그의 혈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도구는 아니다. 물론 우리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오염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가족 생활, '안락한' 가정, 그리고 부부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욕망은 영원한 고통의 근원이다.

남성과 여성간의 섹슈얼리티는 평등한가?

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생식 이외의 성적 욕망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남성들에 한하여 그렇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 현대화의 이름으로 특정한 성윤리가 변화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남성들만이 일부다처제나 여러 명의 성적 파트너를 즐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성들은 항상 한 남성에게만 성실할 것을 강요받는다. 성서의 금기는 넘어섰다 할지라도 사회적 관습은 여전히 여성의 섹슈얼리티 표현을 엄격히 제한한다. 여성이 사춘기에 도달하면 남성의 욕구를 자극하지 않도록 행동에 있어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받는다. '정숙함'과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여교수가 자신이 선택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갈 수도 없다. 아들의 신부감을 고를 때, 가족 내 남성들은 장차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신부감의 육체적 특징을 아무 거리낌없이 조사한다. 여성들에 대한 포르노그래피적 표현들은 수많은 남성들의 관음증적 쾌락을 만족시켜준다. 면도용 크림에서 욕실 물품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광고를 통해 남성의 시선을 끌어야만 상품이 팔린다. 이러한 섹슈얼리티의 정치경제학에서 여성이 자신만의 자주적인 섹슈얼리티와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여성들은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가려야하는 한편, 동시에 남성으로부터 시선을 끌기 위해 몸을 노출시켜야 한다. 상업적 언론에서 소비자

로 표상되면서 여성들에게 그나마 주체성이 부여되더라도, 그 역할은 구매력에 따라 정의되고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구조에 의해 규범화된다.

우리의 운동은 반(反)남성적인가?

우리의 운동은 가부장제 및 가부장적 제도로부터 여성들에 대한 자신의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는 집단으로서의 남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모든 개인 남성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다. 마담이나 여성 건물주들을 제외하면 성매매로부터 이득을 얻는 자는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여성과 매매춘 여성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강력한 가부장적 가치들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여성을 지도되고 훈련되어야 할, 나약하고 의존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합리적인 존재라 생각한다. 가부장적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여성과 남성 모두, 일반적으로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성매매의 통제와 성매매 노동자들의 억압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담론의 힘은 매우 강력하여 우리 매매춘 여성들도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권리에서 박탈당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남성 고객 역시 같은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이다. 때때로 죄의식은 그들에게 박진감을 더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태적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며, 거의 대부분은 자기혐오와 양심의 가책으로 이어진다. 합의한 성인들 간의 당당하고 솔직한 성적 교류라 사고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

남성이라는 동질적인 분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들처럼 남성들도 그들의 계급, 카스트, 인종, 그리고 다른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많은 남성들에게 있어 지배적 성 규범을 지키는 것은 실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 성에 눈을 뜬 젊은 남성, '다른' 여성과 교체하기를 바라는 기혼 남성, 부인과 떨어져 흥동가에서 온정과 우정을 찾는 이주노동자 모

두가 악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간단히 매도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들을 매도하는 것은 욕망, 친밀감, 그리고 상호 쾌락을 추구하는 인류의 전체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한 사고는 총족되지 않는 성적 쾌락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내며, 이로부터 비롯된 부담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에게 더욱 무거운 짐이 된다. 여자와 남자, 그리고 인간 사이의 평등하고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섹슈얼리티가 더욱 심각한 불평등과 꺾박한 통제의 원천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이것이다. 공장, 운전자 휴게소, 시장 주변이라면 항상 흥등가가 있어왔다. 남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소도시로, 그리고 대도시로 이동하게끔 하는 생산 관계의 체계와 이윤 극대화의 논리는 이러한 남성들을 위해 여성들을 성매매 노동자로 만들어내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안타깝게도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깊이 각인되어 있고, 집단으로서의 남성의 이해관계가 여기에 너무나 공고하게 포섭되어 있는 나머지, 주류 정치나 사회 운동에서 여성의 문제는 거의 제기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착취에 맞서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남성 노동자들이 젠더 억압의 문제(더군다나 성매매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응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 급진적 남성들 역시 여성들의 이익에 반하여 가족과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방어한다.

우리는 가족 제도에 반대하는가?

사회적 인식에 의하면 우리 성매매 노동자들, 그리고 사실상 결혼하지 않은 모든 여성들이 가족 제도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우리의 유혹 때문에 남성들이 정상적인 삶으로부터 이탈하고 가족을 파괴한다고 말한다. 종교에서 공식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는 우리에게 대한 이러한 공포감을 반복하여 조성한다. 여성, 그리고 또한 남성들도 이렇게 널리 퍼져있는 모든 여성혐오의 피해자들이다. 우리는 성매매 노동자 운동이 가족 제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가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 구조 내 권력과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를 정당화하고 지지하면서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가족을 이상화하는 지배적 사고이다. 우리 운동의 목표는 진정으로 인본주의적이며, 아직 존재하지는 않지만 정의롭고 평등한 가족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른 사회 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 또한 국가와 사회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구조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규범적이며 이상적인 가족의 기반은 합법적 상속인, 결과적으로 성적 정절을 통해 유지되는 상속제도이다. 역사적으로 가족 구조는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대가족이 하나의 규범으로서의 핵가족으로 대체되고 있다. 사실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관계를 형성해나가면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가고 있지만, 지배적 담론은 여전히 이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이러한 관계는 행복하고, 평등하며, 민주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가족,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도 없이, 불평등과 억압에 기반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가족들을 알고 있지 않은가? 수많은 호적상의 아내들이 식량과 주거지를 대가로 거의 성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은 이러한 결혼과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력도 자원도 없다. 여성과 남성 모두 사회적 압력 때문에 공허한 관계에 갇혀져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이 올바른 것인가? 건강한 것인가?

창녀와 성녀의 분할지배

억압적 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부부의 결혼

관계에 핵심적인 위협으로 규정된다. 여성들은 아내 대 매매춘 여성, 혹은 순결 대 비도덕 등으로 서로를 공격하도록 만들어지는 데, 두 경우 모두 남성의 관심을 끌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숙한 아내는 성으로부터 초월한 모성과 가정적인 모습 이외의 어떠한 섹슈얼리티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스펙트럼의 다른 한 끝에는 '타락한' 여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어떠한 가정적 성향과 여성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고 성에 미쳐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여성의 선택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감추는 그녀의 욕망과 능력으로 판단된다.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은 옆집 젊은 여성은 선할 리가 없으며, 모델이나 여배우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현존하는 섹슈얼리티의 정치경제를 재생산하고 남성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가부장제에 의해 통제되고 구성된다. 남성은 그의 양친한 가정주부이자 그의 아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가장 모험적인 성적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매매춘 여성, 모두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성적 욕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고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거부되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매매춘 여성 외에 어느 누구도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남성들이 우리를 찾게 만드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충족해주고 있는 이 남성들의 성적 욕구는 단순하게 기계적인 성적 행위 또는 '원초적' 본능에 대한 일시적인 만족만이 아니다. 성적 행위를 떠나 우리는 친밀감, 접촉, 화합과 함께 더욱 광범위한 성적 쾌락을 제공해주는데,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를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도 제공하고 있다. 매매춘 체제가 얼마나 외설적이거나 창피해 보이는 간에 최소한 남성들은 그들의 성적 욕구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의존의 대상이 거의 없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완전히 거부당한다. 유일한 대안은 성 산업에서 매매춘을 하는 일이다.

왜 여성들은 매매춘으로 들어오는가?

여성들은 사회에서 제공되는 여타의 생계수단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매매춘을 한다. 우리의 이야기는 캘커타에서 리어커를 끄는 비하르 출신 노동자나 봄베이의 공장에서 시간제 노동을 하는 캘커타 출신 노동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바가 없다. 몇몇은 팔려서 들어오기도 한다. 우리를 구입한 마담에게 속박 당해 있다가 몇 년 후면 약간의 독립을 얻는다. 우리 중 아주 많은 이들은 많은 인생의 경험들(대부분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고, 매매춘 여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의 경험들)을 겪은 후에 성매매를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 대다수가 가족 내외에서 선택권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단순한 가사노동자가 되는가? 우리에게 누구와 언제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가? 특히 가난한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선택이란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왜 우리는 매매춘에 남는가? 사실 너무나 힘든 직업이 아닌가. 하루 동안 여러 명의 고객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육체 노동은 경작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것만큼이나 격렬하거나 혹독하다. 절대로 재미이거나 장난이 아니다. 원하지 않은 임신, 고통스러운 낙태와 성병의 위험과 같은 산업재해도 있다. 거의 모든 흥동가의 주거지와 위생시설은 끔찍한 상황이고, 동네는 초만원 상태인데다 대다수의 성매매 노동자들이 가난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경찰들의 희롱과 지역 광패들의 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궁핍과 가난이라는 물질적 조건에 덧붙여져 사회적으로 냉대 받는 '죄인'으로, 사생아의 어머니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좌절과 분노의 대상으로 낙인찍히고 주변화 당하고 있다.

우리는 '프리 섹스'를 주장하는가?

우리가 주장하고 원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이고, 폭력적이지 않

고, 상호 쾌락적이고 안전한 성이다. 어찌 된 일인지 프리 섹스는 무책임함과 타인의 안전에 대한 배려의 부족으로 여겨지며,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발언의 자유, 정치에 대한 표현은 모두 의무를 수반하며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유 또한 책임과 타인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배려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음란함과 상스러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건강하고 성숙한 태도 및 행동을 모색하고 만들어갈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주적인 섹슈얼리티가 실천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 지는 아직 모른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계급 평등과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선동하였을 때, 백인의 헤게모니에 흑인들이 저항하였을 때, 여성의 종속을 페미니스트들이 거부하였을 때, 그들 또한 자신들이 추구하는 체제가 정확히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 '이상적인 미래에 대해 정확한 그림은 없으며, 오직 운동의 과정 속에서 생겨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주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리의 상상 속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접근권을 갖고, 동등하게 참여하고, 좋고 싫음을 말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억압의 죄책감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 질서가 언제 올 지, 아니면 오기나 할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이상적인 세계로부터 한참 뒤떨어진 이 사회에서, 음식과 건강의 거래 행위에 관한 부도덕성은 수용하면서 왜 성은 비윤리적이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가. 모든 이의 물질적, 감정적, 지적 그리고 성적 욕구가 동등하고 쾌락과 행복이 충족되는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그러한 매매행위가 불필요할 지 모른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불평등과 불공정함에 대해 밝히고, 그 기반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대면하고,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더바 마히라 사만와야 위원회'의 회원인 우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투쟁의 과정은 이제 막 시작이다. 우리는 우리의 운동에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투쟁 그 자체에서 제기되는 젠더, 빈곤과 섹슈얼리티의 이슈 전반에 관하여 토론하고 정의를 내리고 또 재정하는 일이다. 마히라 사만와야 위원회에서의 우리의 경험은, 주변적 세력이 작은 성과나마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물질적, 상징적 질서 (외부의 지배적 담론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성산업 내 노동자로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해나가는 역사적 조건들을 구성하는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지배 이데올로기의 지원 하에 우리에게 행해지는 일상적인 억압과 당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면하고 저항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의 조건과 우리 삶의 물질적 질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노력, 즉 성산업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성매매 노동자들이 획득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미 시작했다. 오늘날 대도시, 소도시, 그리고 촌락의 많은 흥동가에서 우리 성매매 노동자들은 연대와 집단적 힘을 형성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매매춘 여성들의 공동체 속에서 자체적인 모임을 조직화하기에 이르렀고, 매매춘 여성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매매춘 남성들도 우리와 함께 한다

'더바 마히라 사만와야 위원회'는 소나가치와 인근 흥동가의 여성 성매매 노동자들로 구성되었고, 애초에는 매매춘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이 건설된 지 2년이 안되어서 남성 성매매 노동자들도 스스로 동기부여 되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다. 이 남성 성

매매 노동자들은 주로 동성애 남성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사회가 심한 호모포비아를 안고 있고, 실제로 성인 남성 두 명이 합의하에 삽입 성교를 행하는 것조차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남성 성매매 노동자들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지위는 더욱 위태롭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품으로 그들을 투쟁의 동지로 환영하였으며, 그들의 참여가 성매매 노동자 운동을 진실로 상징적이고 힘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성매매 노동자 운동은 지속되고 있고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성매매 노동자뿐만 아니라 크게는 전 사회에, 작게는 자신 내 모든 종류의 종속에 문제제기를 하는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 운동은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계급과 젠더와 같이, 섹슈얼리티 역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성적 불평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는 또한 다른 많은 불평등과 착취를 야기하고 영속시킨다. 우리는 우리의 운동으로 모든 불공평함의 뿌리를 흔들기 위해 현 상황과 다시 대면하고 있다. 우리는 젠더적으로 정의로운, 사회적으로 정당한,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지적으로 자극적인 그리고 여성, 남성과 아이들에게 명량한 사회를 위해 이 싸움과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 1997년 11월 14-16일 더바 마히라 사만와야 위원회(Durbar Mahila Samanwaya Committee)가 인도 캘커타에서 개최한 '제1차 전국 성매매 노동자 회의'의 선언문

엠파워1)의 찬타위파 아피숙과의 인터뷰*

아라 윌슨

세계에서 태국만큼 매매춘으로 잘 알려진 곳도 드물다. 아난게 아니라, 찬타위파 아피숙이 간단히 줄여 "매춘굴이 학교보다 많죠!"라고 말한 것처럼 이 동남아시아 왕국의 성산업은 정말로 대단하다. 태국에서는 모든 관심이 매매춘에 쏠려 있지만,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관점에서의 진정한 관심은 드물다. 엠파워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찬타위파 아피숙은 이 여성들에게 관심을 집중해왔다. 나는 논타부리에 있는 엠파워 본부 사무실에서 그녀와 태국의 매매춘, 활동가로서

- 1) [편집자 주] Empower는 'Education Means Protection of Women Engaged in Recreation(교육은 레크리에이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보호를 의미한다)'의 약자이며, '힘을 부여하다'라는 뜻이다. 1985년 팟퐁 지역에서의 매매춘과 섹스 관광에 대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지역 여성들을 위한 교육 및 생활 지원 단체로 변모하게 되었다. 현재는 생활 지원 센터일 뿐만 아니라 매매춘 여성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며, 현재는 3개의 지부를 통해 방콕, 논타부리와 치앙마이외의 3만명의 성매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발전하였다.
- 2)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수에 대한 추정치의 범위는 75,376에서 200만명까지 된다. 추정치는 불법 영업 측정의 어려움과 여러 정부들 간의 방법과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추정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하다. 1991년에 추정된 중간 정도 수준인 15만에서 20만명의 상업적 성매매 노동자(18세 이하 어린이 포함) 수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수치이다.

걸어온 과정, 그리고 성산업에서 중노동하는 여성들의 권리와 여성들의 요구를 가장 잘 표명하는 전략과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한 활동가의 탄생

1973년부터 1983년까지, 찬타위파는 미국에서 공부했다. 그녀가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그 기간 동안이었다. 다른 반제국주의자들, 인권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찬타위파는 동남아시아의 정치범 석방을 위해 일했다. “국적이 다른 여성들과 남성들이 평등하게 이 사안을 위해 일했어요”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공동으로 연합해서 일하는 형태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찬타위파는 또한 태국이 급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수한 발언을 하는 여성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여성에 관한 사안을 특별히 다루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라고 평가를 한다. 그 후 그녀는 여성문제, 특히 매매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베트남전 반대 운동을 하던 여성들과 접촉을 했고, 70년대 말에는 네슬레의 분유식품(사용법을 읽을 수 없거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이나 데포 프로베라 (당시 미국에서는 식품약품당국의 사용허가가 내려져 있지도 않았던)와 같은 제품을 무더기로 다른 나라에 파는 것에 반대하는 여성들과도 접촉을 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들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에 첫발을 디딘 것이었다. “그 사람들 덕에 여성문제에 조금은 관여하게 되었던 거죠.”라고 그녀는 말한다.

아마도 여성문제에 관해 그녀의 인식을 확연하게 깨운 것은 태국여성으로서의 여행 경험이었을 것이다. “70년대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태국여자를 보면, 부유한 집안에서 교육받은 여자겠구나 했었죠. 1983년도에 저는 심지어 방콕 안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묻죠. 왜 혼자 나라 밖엔 나가 있는

지, 왜 남편을 떠나 있는지. 태국 밖에서는 제 태국 여권을 본 사람들은 제가 마약 밀매업자이거나 매춘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른 태국 여성들이 똑같이 질문을 받거나 영사관 같은 데서 혼자 차별받는 곤혹을 치루는 것을 봤어요.” 이러한 경험들이 그녀의 활동가적 감성에 불을 당겼다. 그녀는 ‘태국 여성’ 하면 붙여지는 고정된 이미지가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이것이 내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다른 많은 태국 여성들과는 달리 성매매 노동자들을 낙인찍지 않는다.

1983년, 찬타위파가 태국으로 돌아왔을 때, 방콕은 변해 있었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성산업이었다. 태국의 가장 유명한 흥등가는 시내 금융지역을 관통하며 대부분 서양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니아라 불리는 일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골목 하나를 제외하고) 팟풍의 골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태국을 떠날 때는 팟풍이 그저 미군들이나 외국인들이 가는 작은 주점거리였고, 태국 사람들과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죠.” 지금 네온사인으로 가득찬 이 거리는 수십 개의 닥지닥지 붙은 고고바, 서양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외국 식당들이 여기저기 들어서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찬타위파는 팟풍을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말하기를,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도 있죠. 저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다고 생각했어요.” 국제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찬타위파는 일차적으로 제3세계에서의 제국주의와 착취적 관점에서 성 무역을 이해했다. 그녀는 이 사안을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는 노동자”로 보았다. “처음에 우린 이것을 관광업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매매춘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왔죠. 타니아에서는 일본 관광객들이 깃발을 단 관광객으로 가득찬 버스를 이끌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이 아직 기억에 생생하네요.” 찬타위파는 또한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일과 중국에는 자신에 대한 낙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대면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제 눈엔 그녀들이 정치범처럼 보여요. 어떠한 점에서 그러냐하면, 범죄자로 간주되지만 사실 실제로 무슨 범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거슬리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성매매 노동자 낙인찍기

다른 나라에서처럼, 태국에서도 매매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복합적이고 자주 모순적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매매춘을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성행위를 더 필요로 하고, 따라서 남자들에게 이를 위한 배출구가 필요하다고 믿어요. 또한, 남자들이 첩을 들이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도 성산업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기”라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널리 행해지고 있는 매매춘과 이를 지지하는, 성매매 노동을 수용할만하다고 보거나 태국문화의 총체적인 한 부분이라 보는 외국 고객들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낙인찍히게 된다. 세계 어디에서처럼, 비난과 비판과 법적인 조치들이 고객이나 업주들에게보다는 전적으로 여성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찬타위파는 “대부분 사회적 신분이 있거나 부유한 남자들”이 성매매 노동자들을 찾다고 단언한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했다. 좀 쉬면서 맛사지라도 받아야지’라고 하죠.”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들에게 아무런 말을 못해요.” 보다 힘있는 관료들은 주의와 징계를 잘 피한다. “한편, 관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윤을 챙긴다. 그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비호’를 받아가며 해야죠. 왜냐면, 이 산업은 불법이니까요.” 성 서비스를 시는 남자들은 미꾸라지 같이 잘 빠져나간다. “만약 매매춘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남자를 붙잡고 ‘지금 여자랑 자려고 거래하고 왔지요?’라고 물으면, 아무도 그가 고객이라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돈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남성들에게겐 쉽죠.” 여성들에게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적용된다. 이 무역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눈에 잘 띈다. 때문에 이름 붙이고, 대상화하기가 쉽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더럽고, 무식하고, 게으르고 문란한 사람이고 문제

를 일으키죠. 의사들은 질병 보급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여성이고, 남성들이 성병에 걸렸을 때는 그 병을 ‘여자 병’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성병 치료나 부인과 검사를 받으러 가면 병원 직원들은 이들을 몹시도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이 여성들을 가난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생각하죠. 이 여성들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고 무식하다고 보는거죠. 개발업자나 민간단체들에게, 이 사람들은 ‘목표 대상’이죠. 국가 개발 계획의 사회적 실패의 결과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움을 받아야’하고, ‘보호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이들을 자신들과 정말 다른 사람들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여성들이 어디서 먹고, 어디서 사는지 보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해 흥미로와하죠.”

많은 사람들은 태국 국내외에서 정부가 중재해 성산업의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태국 정부의 접근방식은 이 산업의 업주들과 고객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강경 조치’를 취할 때면, 정부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했다. 사실, “경찰은 여성들을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자로 봅니다. 그리고, 법망의 헛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죠. 이따금씩, 그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 매매춘 업소를 느닷없이 쳐들어가기도 하지요. 이럴 때면, 그곳에서 일하던 여성들과 여자 아이들은 재활원이나 사회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라 불리는 곳에 입소 조치됩니다.” 이 시설들에서 여성들은 재교육원과 같은 곳에 강제 수용되고 이들은 눈에 띄는 경제적 대안을 제공하는 기술 연수를 받는다. 이를테면, 미용기술이나 명성짜기, 인형만들기 등이다. 그렇지만, 찬타위파가 지적하듯이, 이런 일로 나올 만한 수입은 실제적인 경제적 대안이 못될 정도이다. 설사 된다하더라도, 숫적인 한계가 있다. “약 800에서 1,000명 정도가 매년” 이 시설들에 수용된다. 그리고 수십만이 성매매 노동자로 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위주의 대응의 실제 문제는, 찬타위파가 지적하기로는 “재활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부는 “이 여성들을 제한하고, 제어하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식을 갖게 만들고, ‘너는 더러워, 자 우리가 널 씻어준다. 그러니 넌 다시 깨끗해지 는거야’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판과 같은 태 도와 행동의 규제는 여성들이 스스로의 삶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매매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어떤 장기적인 혹은 실제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이다.

찬타위파의 비전: 엠파워

찬파위파는 ‘나쁜 여자’로 낙인찍힌 여성들의 고통을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의 맥락이 아닌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인간이라는 맥락으로 이들 여성들에 대한 시각을 만들어내려 한다. 태국 성매매 노동자들은 대체로 자식들이나, 자기보다 어린 형제나 자매들, 혹은 전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집에서 이 여성들의 대부분이 음식을 하고, 세탁을 하고, 가족들을 돌보죠. 많은 경우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집안의 가장이죠.” 찬타위 파가 보기에 대부분 성매매 노동을 ‘선택’해서 하게 되는 경우보다 “이런 저런 밀고 당기는 요소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산업에 들어 오게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이곳의 모든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성매매 노동자가 되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생활 형편 때문에, 혹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말입니다.” 찬타위파는 십대 때부터 성매매 노동에 발을 들여놓은 여성들은 육체 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한다. “십대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성감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하죠. 모두가 아니고, 아무나가 아닌 자기가 선택한 그 누군가와 말이죠.” 그러나 이 여성 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하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행복 한 듯 연기해야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며, 좋은 집대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 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찬타위파는 직업의 성격에 대해서 현실적이지만, 성에 대한 지속적인 초점은 성매매 노동자들의 상황과 요구에 대한 제한된 분석과 실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다. “제 생각으로는 ‘매매춘’이라는 말 자체를 무시하고, 이 여성들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다른 여성들과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확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성매매 노동자도 노동자로서 여겨져야 합니다.” 성에 집중하는 것은 매매춘 여성들의 낙인을 강화하고, 여성들 스스로 에게 더욱 급박한 문제들을 도의시하게 된다. 찬타위파가 지적하기로 는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여성들과 업주들, 여성들과 사회 사 이에 말이죠.” 여성들이 생활에서 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더욱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이 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착취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경제적 착취인가, 사회적 착취인가 아니면 성적 착취인가?” 찬타위파 는 성산업의 규모와 조직구조가 경제적 측면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사 실을 입증해준다고 한다. “모든 구석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여성들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죠.” 찬타위파는 성산업을 관 광 마케팅과 소비라는 더욱 넓은 범위에 위치시킨다. “성을 파는 것 은 태국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오게끔 하기 위한 판촉이예요. 정부는 의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관광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와서 음악이나 음식을 경험해보는 것, 쇼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엠파워의 목표는 오락 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여성들을 직업상의 위험 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녀들의 상사나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물리적인 위험, 성병, 영양실조, 수면 부족과 빈약한 거주지 등 건강상의 위험, 제시간에 치장을 하지 못했다고, 또는 요구 되는 횡수만큼 남성들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물게 하거나, 단 속을 피해 술집주인들은 술집들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시간인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여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등의 경제적 착취, 그리고



사회적 태도를 포함된다. 후자가 아마도 가장 힘빠지게 하는 요소일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여성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불평을 해소하고, 이 여성들에 대한 엠파워의 접근 방식은 실용적인 것이다. 여성의 일상적인 문제와 이들을 착취하고 있는, 국제적이기까지도 한 거대한 산업 내 노동자로서의 요구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 센터를 찾는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낮으며, 신문을 읽지 않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퍼요. 그녀들은 19세 또는 20세이고 술집 외에는 방콕을 몰라요. 방콕 길을 몰라요. 번 돈을 은행에 넣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고, 편지가 번역되기를 원하고 신문을 읽길 원해요. 그녀들은 은행에 가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해요.” 찬타위파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매매춘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의 문제라 지적한다.

여성들의 조직화와 자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마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경멸일 것이다. 성매매 노동에 대한 낙인은 때로 자기보호와 확산에 대한 여성의 능력을 감퇴시킨다. 찬타위파는 “성매매 노동자들은 이 직업에 종사하는 자신에 대해 일종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보호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 사회, 기업주, 고객과 심지어 여성들을 지원해 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성들에 대해 보여주는 도덕적 판단 내지는 적대적인 대우는 여성의 소외를 더욱 강화하고, 성산업에서 일하는 위험부담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엠파워의 회원 중 한 명은 큰 대학 병원을 찾아갔는데, 매우 안 좋은 대우를 받았다. 그녀는 불평을 했더니 간호사는 ‘그 정도의 고통쯤은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불평하지 마세요’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한다.

엠파워가 이러한 낙인에 도전하는 방식 중 하나는, 성매매 노동을 여성의 현재적 현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엠파워는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노동을 떠나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노동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합니다”라고 찬타위파는 말한다. 엠파워의 주요한 과정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고객과 고용주들과의 협상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또한 더욱 야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표도 있다. “우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표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영어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자신감과 자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엠파워 모임에 있는 많은 이들은 이 조직을 측정가능한 결과보다는 하나의 과정의 맥락으로 바라본다. 찬타위파는 한 학생이 엠파워를 기차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타고 한 정거장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갈 수도 있다”. 엠파워가 여성들에게 산업을 떠나라고 권장하지 않지만, 건강상의 위험과 젊은 여성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 때문에 이 직업에서 여성의 수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엠파워는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도록 돕고 있다.

* 이 글은 Information Center Womyn for Womyn(icWOW)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이은실씨가 발췌 및 번역한 것임.

성매매 불법화에 맞서 싸우는 대만 성매매 노동자들

대만에서의 성매매는 '허가제'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여성들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7년 9월, 타이페이의 시장 쟈는 흥동가의 폐쇄를 명령하였으며, 합법적으로 성매매 활동을 해온 여성 128명의 허가증을 폐지했다. 이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여성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춘부'라는 낙인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쟈는 '매매춘 금지'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자 추세라고 주장할 뿐 이들 여성들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0월 13일, 허가제 성매매 노동을 했던 한 여성이 자살을 기도했다. 자살 기도를 하기 바로 직전, 이 여성은 "나의 두 아이들 중 한 명은 전문대에 다니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막 군대 생활을 마쳤다. 최소한 우리에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달라.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을 타이프에 남겼다. 여성들 대다수에게 성매매는 임대료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정부가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한 명의 성매매 노동자에게 약 10명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질규는 성매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다. 성매매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지속적으로 대 정부 투쟁을 했다. 성매매 불법화 조치의 폐기를 외치기도 하고,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2년 유예기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쟈를 쫓아다니면서 공식 행사를 보이콧하기도 하고 시위도 했다.

그리고 다음 해, 1998년 5월 24일 - 26일까지, 인도, 스웨덴, 홍콩, 호주, 멕시코 등 13개국 성매매 노동 운동 활동가 대표 18명이 대만에 모여 '성매매 노동권을 위한 세계 행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매매 노동자, 학자 그리고 사회 활동가들은 성매매 노동자들의 고뇌, 성매매 불법화의 문제점,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회의의 마지막 날인 26일, 해외 대표단, 성매매 노동자, 활동가 수백 명이 타이페이의 시청부 건물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시청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전경들이 건물을 봉쇄하였고, 시장 자신도 이들의 서한을 거부했다. 결국 전경들에게 진압당한 이들은 서한을 손에 쥘 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들의 전쟁에서는.....

[편집자주] 세계화, 군사주의 그리고 여성

세계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여성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착취하는 세계화의 속성에 주목했다. 그러한 속성이 응집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군사주의이며, 이는 종종 극단적이며 직접적인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물론 세계화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도 여성에 대한 억압과 전쟁은 존재했고, 군사주의는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군사주의와 여성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연구들을 충분히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일단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을 접하고자 시작한 이 작업도 계속 난항에 부딪혔다. 세계화, 군사주의, 여성의 관계를 다루려는 시도들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세계화와 군사주의/ 무기산업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룬 글들이 많았다. '세계화의 기제, 군사주의'는 이러한 글 중 비교적 여성을 논의에 두려는 글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과 군사주의를 다룬 글들은 주로 전쟁 시 집단강간 등 여성에 대한 이른바 강도 높은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과테말라 젠더 폭력'은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이며, '짓밟힌 육체, 산산이 부서진 마음'은 일상에서 전쟁 상황까지 일맥상통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준다. '군사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적 시론'은 군사주의를 바라보는 데 있어 페미니즘적 시각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의 의도가 세계화, 군사주의, 여성의 관계들을 밝히고 일상의 수준으로 그 언어들을 가져오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작업은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천하지만 작업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대단히 낯설어 한다는 점, 여성은 군사주의와 관련해서는 완벽한 타자이거나 언제나 희생자라는 점을 발견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여성평화운동단체나 인권단체들이었는데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지구화의 기제, 군사주의*

바바라 로흐빌러**

1. 군사주의와 인권

이 논의에서 우리는 인권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본다. 만일 우리가 군사주의와 인권에 대해 생각한다면 여러 다른 그림들이 떠오를 것이다. 전쟁에서 살아남았거나, 콜롬비아, 시에라리온, 코소보, 중동, 코카서스와 같은 최근의 분쟁지역에서 온 회의참가자들에게 거기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잔학성은 심각한 실존의 문제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군사주의에 의한 인권침해를 간접적이지만 끊임없이 경험했다.

- 삶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하는 쓸모없는 자원과 지식의 낭비
- 군대에 의한 환경파괴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핵 방사능의 영향
- 아동들의 총기사용
- 군인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고문
- 경제봉쇄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기아
-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에 대한 군사주의의 파괴적 영향

이 목록은 끝없이 이어나갈 수 있다. 이것은 군사주의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추악한 측면들과 인권으로 이해되어야 할 평화의 권리를 정치가, 정책 결정자 그리고 대중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군사주의는 세계화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세계화에 관한 우리의 작업에서 우리는 군사주의와 세계화를 포함한 세계화와 다른 영역간의 상호의존성을 밝히려고 노력해 왔다. 다른 분야에 관해서는 엄청난 양의 고민과 저작들이 있었지만 군사주의와 세계화의 관계를 밝힌 글들은 별로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평화 단체로서 세계화 논의에 군사주의의 역할을 끌어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투자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구화의 주요활동 인자인 초국적 기업들은 정치적 안정과 안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왔건 국내에 있건 군대가 초국적 기업의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한 국가의 군대와 군사동맹은 초국적 기업의 이해, 즉 세계의 재식민화에 우선 부합되도록 보장해줘야만 한다.

우리는 어제 토론에서 세계화의 부정적인 결과가 전세계적으로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평화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빈부 격차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자본, 금융과 같은 요소와는 달리 정치인들과 국가는 국민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경찰과, 미국과 서유럽 같은 부유한 국가의 국경경비대가 엄청나게 군사화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경제력이 없는 외국인들을 막기 위한 폭력사용이 목인되고 있으며, 경찰은 더 잔인해졌고, 국내에서는 감옥이 가난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일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경제적 고통의 원인을 회피하기 위해 인종주의적 선동이 이전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아태아로라에서는 원주민 마오리족이 전체 인구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교도수 수감자의 대다수는 마오리족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수중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사실상 세계화의 주요 동력인 경제나 금융, 기술에 맞서는 일관성 있는 세계적 정치의 틀거리는 없다. 그러나 세계적 경향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세계적 안보전략은 이러한 발전에 적응해야만 하고, 분쟁이 나타나는 여러 다른 모습에 대해 반응해야 한다. 동유럽에서 변화가 초래한 문제와 남반구 많은 국가들에서의 무(無)개발의 문제는 권력 진공상태를 만들어 내거나 국가 구조의 침식으로 이끌었다. 다른 민족적 정치집단들에 의한 자치와 단절에 대한 욕구는 새로운 국내분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안보와 안보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관한 각종 세계 회의로부터 나온 많은 좋은 문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력있는 기구들에서 군사적 우위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잠시 나토를 살펴보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나토(NATO)가 스스로를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평화기구로 자처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러한 집단적 방어 동맹은 보스니아에서의 위기관리와 나토협력회의와 같은 협력안보라는 새로운 기능을 덧붙였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나토는 안보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반면 유엔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지역 안보기구로서의 힘을 잃어갔다. 평화 유지 및 강화라는 유엔의 전통적인 임무가 미국의 주도적인 힘 아래 점점 더 나토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나토는 세계의 경찰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무기 관리, 협력과 안보 구축 주도권을 다루면서 다른 기구들은 '부드러운' 기구로서의 역할만 하도록 남겨두었다.

캐나다의 토니 클락이 지적했듯이 "만약 나프타(NAFTA), MAI 등이 초국적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나토와 군대들과 같은 군사동맹은, 크건 작건 간에 이러한 구조들을 고정시키기 위해 나란히 행진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세계적으로 우리는 군비경쟁이 약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평화 분담금'을 보지는 못했다.

군산복합체를 좀더 가까이 살펴보면 우리는 무기산업과 세계화에 대한 몇 가지 경향을 볼 수 있다. 두 가지의 기술적 경향이 무기산업 내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첫째는 이중사용(dual-use) 기술의 중요성 증대, 즉 생산품과 생산 방식은 민간 생산이나 군수생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쟁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통신수단과 정보의 사용으로, 이것은 무기산업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민간부문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무기생산의 새로운 가능성들이 있다. 만약 1990년과 91년 걸프전에서 새롭게 시험된 기술들이 시장성을 얻을 수 있다면 전통적인 무기산업은 통신 기술과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산업체들에 대해 커다란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여전히 무기 생산은 국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민간 시장의 세계화와의 모순을 점점 더 증대시킨다. 제품인증과 국제자본 공유에 있어서 무기생산-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무기 시장은 여전히 외국의 경쟁자들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시장에서 무기산업을 위한 제품구매의 세계화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부가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군사 기술 이전과 군대를 통제하는 정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랜 시간동안 요구한 국제협약은 어떻게 됐는가? 1996년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WILPF)은 이러한 이슈들의 복잡성을 살펴보고자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었고, 군사적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군사주의와 군사주의가 어떻게 실물화되고 있는지 다루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냉전 시기에 러시아와 미국에 세워진 커다란 군산복합체를 살펴보자. 러시아는 3개의 국가 개혁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 중 어떤 것

도 완전히 수행되지 못했다. 무기산업의 영향과,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오래된 군산복합체 구조를 보호하려는 정부 자신 때문에 체계적인 실행이 어려웠다.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면의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는 이를 끌어들이지 못했다. 지난 주 러시아에게 주어진 IMF 차관에 관한 기사를 생각해 보라. 현재 러시아에서는 40%의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1993년 미국 정부는 2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자문센터와 직원의 능력향상 훈련을 포함한 매우 사려 깊은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에 관한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1994년 정부는 프로그램을 삭감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중사용 제품의 기본적인 군사적 가치를 보여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클린턴 행정부는 제휴비용 보상과 무기수출 증진과 같은 방법으로 무기산업 내부에서의 집중을 가속화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이러한 집중의 과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주주의 관점에서야말로 이 전략은 가장 성공적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3대 대규모 무기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 각각은 독일과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자랑한다. 서유럽에서는 여전히 국가 차원의 경쟁이 일어나고 인수 합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기산업의 피고용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기판매는 감소했고, 무기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었다. 1996년 무기산업에서 일자리는 930만개 이하로 4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동·서유럽,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감소세가 나타났고, 아시아에서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해고당한 사람 중 몇 명이나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했는지 알 수 없다. 100개의 큰 군수기업들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1990-1995년 사이 이들 회사들은 직원 50만 명을 감축했고 동시에 민간부문에서 천억 달러상당

의 생산을 증가시켰다. 이론적으로 이는 50만 명의 고용 증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더 많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생산성에 의해 충당되었다.

회사 내에서 군수에서 민간생산으로의 전환은 여러 가지 경우로 가능해 왔다. 이익은 증가하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해고자의 3분의 2가 2년 내에 새로운 직업을 구했으나 대개 임금이 더 낮았다(전환에 대한 여론조사 1998, 본 국제전환센터). 민영회사를 위한 전환 정책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전환과정과 함께 진행 될 전체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갖추는 것이다.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면서 계속 새로운 시장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비록 무기산업이 각 국 전쟁관련 부처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가능한 국가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돌상황에 무기를 투입하기 위해, 세계 모든 지역의 무기수출의 증진과 협력은 무기 이동에 관한 얼마 되지 않는 관리기계의 통제를 아예 거의 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브뤼셀에서 무기수출 증진소가 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무기수출을 끝내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유럽의회가 도입한 유럽윤리강령(European Code of

Conduct)은 무기산업이 이윤을 내도록 도우려는 대다수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은폐한다.

무기업자는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 한편 국방부는 새로운 임무를 찾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지속적인 공적 보조금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나토의 확장이 이러한 임무를 제 공해준 좋은 기회였다.

나토의 확장은 무기수출을 위해 엄청난 새로운 원조 출로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 이는 미국 회사들에게 전투기로만 80-100만 달러의 매출을 가져오고, 이후 10년 간 총 350억 달러 상당의 무기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무기산업 로비가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었으며, 나토 확장에 포함될 첫 세 지원국이 선택되기도 전에, 잠재적인 나토 회원국의 무장을 위해 수십 억 달러의 연방보조를 하도록 의회와 국방성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돈이 되는 장사이다. 1995년과 96년의 무기산업에 대한 투자와 결과를 비교해 보자. 보잉과 맥도널 더글라스는 의회가 나토 확장을 지원하도록 설득하는 데 13억 달러를 썼고 78억 달러의 외국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엄청난 마케팅 활동은 결과적으로 동유럽과 중부유럽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나토 확장은 새로운 회원국의 취약한 경제의 예산안을 끝장 낼 것이다.

(무기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초국적 기업과 전쟁사업의 민영화

초국적 기업은 자신의 이해에 맞는 국가 외교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에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게다가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내부에서 좀더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업 부문을 유인하고 있다. 만약 어떤 형태로든 유엔과 그 정책, 프로그램이 이러한 '협동 벤처'에서 이익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국가 구조는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또한 국가에 의한 무력의 독점이 침식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독점의 상실은 즉각적으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작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혼란스러운 사회에 아무런 통제 세력도 없다면, 인도주의적인 원조의 분배나, 실제적인 갈등해결은 불가능하다.

처음에 내가 말했듯이 초국적 기업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의 조성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자신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갈등을 막는 일이나 심지어 교육사업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윤이나 지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대, 준군사조직, 사설 군대를 사용하거나 도구화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는 나이지리아에서 셀이 행했던 것들이다. 물론 이러한 예는 훨씬 더 많다.

국가 권위의 약화와 심지어 국가의 내부 파열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안보전문가들과 용병의 고용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돈을 내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안보산업'이라는 세계적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성공적인 사업의 사례는 런던에 본부를 둔 디펜스시스템(DSL)사이다. 그 회사는 전 백악관 안보고문이었던 앨런 콜라친스키처럼 다양한 이력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 그는 현재 미국 디펜스시스템사의 사장이다. 유명한 알파팀의 KGB요원이었던 골로바토프도 이러한 사람 중 한 명이다.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회사의 고객인가 묻자 "석유화학회사, 광산 혹은 광물 추출회사와 자회사, 다국적 기업들, 은행, 대사관, 비정부기구, 국가 기구와 국제 기구입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답했다. 민영보안회사는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DSL은 이중에서도 선도적인 업체이다. 이 회사는 분쟁 상황에서 안보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유엔을 위해 일하며 그 후에 재건설을 위해 현장에 오는 세계은행과도 일한다. 그들의 임무는 여러 가지이다. 92-96년까지 DSL은 전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유엔 활동에 참여한 가장 큰 민간부문 공급자였다.

이 이야기의 '꽃'은 그러한 기관들의 업무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미네소타의 '다국적 기업감시'와 같은 비정부기구들이다. 이 단체는 세계화로부터 이익을 얻는 수혜자에 관한 신화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얻게 해 주는 확실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앞서 언급된 두 명의 전 안보고문들의 경우에 대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보고서에서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냉전시대 경쟁국들의 식민지적 이해를 무력적으로 증진시켰던 이러한 사람들의 과거 경험이 자신이 남긴 환경적, 사회적 황폐화에 대해 지역 공동체가 저항할 것을 두려워하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유사한 서비스로 옮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 이론가인 마틴 반 크레펠트는 그의 저서 「전쟁의 전이」(1991)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최소한 1648년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군사적 경제적 기능은 재통합될 것이다. 강도 약한 분쟁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부담의 많은 부분이 현재 부상하고 있는 안보산업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국가를 대신하는 때가 정말로 올지도 모른다. 미래의 '전쟁 기구'는 과거 봉건시대에 부족, 도시국가, 종교 집단, 사설 용병 그리고 대영제국 시대의 동인도회사와 같은 상업적인 기구들과 아주 유사해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른바 안보 산업의 민영화의 발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대중적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

* 원래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파트는 대안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의견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주로 국가를 공공선 구현 및 수호하는 기관으로 상정하고, 국가기구의 무력독점 복원과 유엔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한 의견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으나 자료집의 의도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 2장만 실는다. 전문은 다음의 주소에서 얻을 수 있다.

(www.wilpf.int.ch/~wilpf/golbaliztion/paper1.htm)

목차 .

1. 군사주의와 인권
2. 군사주의는 세계화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3.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가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에 대해 지구적 평화질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소속. 이 단체는 1915년 당시 유럽에서 발흥하던 전쟁에 반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서로 다른 정치적 철학적 신념을 가진 여성들이 함께 모여 전쟁의 요인이 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을 알려내고 제거하고 건설적인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